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존중하면 이 땅에 평화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악에 물든 인간들이 자처한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어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모든 크리스천들이 눈물로 무릎 꿇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우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레위기 26장 6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6년 8월 27일 (토) 제 1598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IS의 동남아 확산 공조 통해 막는다!

IBTimes, '와하비즘' 모토로 테러전진기지 확산 중인 IS 대처 보도

이슬람국가(IS)의 동남아 지역에 대한 테러 전진 기지 확보가 가시권에 들어와, 국제사회의 공조가 절박적이다. 지난 1월 자카르타 자살 테러 공격에 이어, 6월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외곽의 한 업소에 수류탄 공격을 감행해, 이 지역 동남아 지역에서 언제 테러가 발생될지 모를 정도다. 말레이시아 경찰에 따르면, 지난 테러는 IS의 첫 말레이시아 공격이었다. 한마디로, IS가 영토 축소를 위해 유럽에서 테러전을 감행하는 것처럼 동남아를 테러 표적지로 삼아 추종자 동원과 동시에 거점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 테러로 동남아시아 각국이 초긴장 상태다.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필리핀에서 IS에 가담하고자 시리아로 간 인원이 최소 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남아를 겨냥한 테러가 언제 재현될지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IS의 동남아 지역 확산에는 '와하비즘(Wahhabism)' 즉 이슬람 근본주의 교리가 단단하게 한 몫을 차지한다. 결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이러한 이슬람 급진근본주의를 퇴치하려는 공조 운동을 '아이비 타임스(IB Times)'가 보도했다(Malaysia and Singapore agree to share biometrics of terror suspects to curb their movements: Ministers from the two countries have agreed to step up counter terrorism efforts in the region.

싱가포르-말레이시아, 테러용의자 지문 등 생체 정보 공유 대테러 공조강화 합의

이슬람국가(IS)를 비롯한 알카에다, 탈레반, 보코하람, 알샤바브 등 국제 이슬람 테러조직의 모태가 되는 '와하비즘(Wahhabism)'이 동남아시아에서도 확산됨에 따라 더 이상 아시아도 테러로부터 안전할 수 없는 지대가 되고 있다. 와하비즘은 이슬람 근본주의 교파의 하나로, 엄격하고 청교도적인 수니파 이슬람 근본주의 운동을 의미한다. 이는 수니파의 분파로 사우디왕가가 그 본산이다. 쿠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이슬람 근본주의에 근거한 샤리아 등 엄격한 율법을 강조한다. 특히 여성의 종속화와 이교도들에 대한 무관용적인 살상 등 배타성과 폭력성을 띠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동남아시아 이슬람 국가들은 중동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건·관용적 무슬림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이 급속도로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2차 대전 후 첫 이슬람 국가가 된 파키스탄을 동남아시아 와하비즘의 전초 기지로 평가하고 있으며, 가장 강력한 이슬람 세력이 존재하는 곳은 말레이시아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 들어 이슬람 국가(IS)는 무슬림 최대 인구를 자랑하는 인도네시아에 공을 들이고 있다.



IS 세력이 동남아로 확산되자 관련 국가들이 공조를 통한 방어를 시작했다.

이에 말레이시아 당국은 국가안보 경계 태세를 최고조로 올리는 등 동남아 각국은 IS 테러에 대비하고 나섰다. 따라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테러를 막기 위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

히 널리 알려진 테러단체 대원과 테러로 기소된 인물의 생체 정보 등 양국 사이에 중요한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테러 근절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3면으로 계속)

'스펙' 위한 선교여행 너무하다!

NYT, 명문대학 입학 위한 해외선교, 봉사활동의 허실 보도(상)

'아이비' 리그를 비롯한 미 명문대학 입학 사정관들에게는 고민이 있다. 즉 지원을 위한 서류 전형에서, '제3세계 난민구호소에서 2주간 일하면서 매우 귀중한 경험을 쌓았다'는 에세이는 쉽게 볼 수 있지만 '직장상사의 잔소리, 전혀 마음이 맞지 않는 동료와 한 공간에 있느라 정말 힘들었다'는 살아 숨 쉬는 듯한 '청소한다'운' 현장경험을 적은 에세이를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이다. 물론 해외나 국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단기 선교나 봉사활동을 통해, 삶이 바뀌는 귀중한 경험을 배우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명문대 입학이 일종의 '메뉴얼'처럼, 여름방학에 반드시 봉사나 선교를 가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내용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스펙화' 돼가고 있다는 점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따라서 "하버드에 가기 위해서는 하이티에 가야하나?(To Get to Harvard, Go to Haiti?)라는 도발적인 제하로, 여름 방학 기간 실시되는 봉사 활동의 허상을 고발하고 있다.

미시간주 플린트에 있는 카톨릭 사립고등학교에 다니는 17살 딜런 에르난데스(Dylan Hernandez)는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 지난해 이맘때와 비슷한 내용의 글과 사진이 친구들의 소셜미디어에 계속 올라오는 것을 발견했다. "정말 저 빼고 모두가 그랬다고 느껴질 정도로 수많은 친구가 중앙아메리카나 아프리카로 '선교 여행'을 다녀왔어요. 사실 그런 여행을 다녀오는 친구들은 대개 집이 좀 잘 사는 친구들이니까 저 빼고 전부라고 할 수는 없긴 하겠네요." 그런 여행을 다녀오는 친구들이 스냅샷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사진들 가운데는 맨뜨까지 판에 박힌 것처럼 비슷한 내용이 많다. "두 달에서 여섯 달 사이쯤 되는 어린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찍은 사진이 달린 글은 대부분 이런 식이죠. '이토록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두고 차마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네' 뭐 이런 거 많아요." 그러나 끝내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그곳에 정착한 학생은 아마 없는 것 같다. 모두 집으로 돌아온다. 짧게는 일

주일 정도 미지의 나라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을 찾아다 쓰러져가는 학교나 도서관 보수작업을 도와주고 안락한 집으로 돌아오면, 이 학생들은 대학교 지원서 중 자기소개서에 채워 넣을 인상적인 이야기거리를 얻게 된다. 그 짧은 시간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깨달음을 주었고, 그를 통해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났는지 유려하게 설명해내는 건 이제 포장하기에 달렸다. 에르난데스는 봉사활동이나 뜻 깊은 일을 하러 다른 나라에까지 가본 적은 없지만, 오랫동안 자신이 사는 플린트의 YMCA를 통해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함께 놀아주는 등 폭넓은 봉사활동을 해왔다. 그는 가끔 해외에 다녀오는 몇몇 친구들의 모습이 좀 거슬리는 게 사실이라고 말한다. "대부분 친구가 좋은 뜻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간다는 거 저도 잘 알죠. 그렇지만 가끔 몇몇 친구들은 그저 이국적인 여행에 대한 낭만만 잔뜩 품고 갔다가 정작 그곳에서 가난의 무게를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고 돌아오는 것 같아요. 멀리 갈 필요 있을까요?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석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박사: 목회학과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조은출판사
20년 경력의 "월간광야" 노하우로
원고 수정부터 편집, 인쇄까지
품격있는 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Tel (626)789-1301, (626)522-9909
대표 발행인: myong@joenchulpan.com

7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8면: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14면: 인/터/뷰 이광보 선교사
16면: 살롬의 교육학 이희갑 목사

KIM Mission - 제52기 월드크리스천 무브먼트 에티오피아 세미나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관점에서 보는 세계선교)

[제52기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에티오피아 세미나]

- 일시: 2016년 9월7일(수) -11일(주일)
- 장소: 에티오피아 짐마 국제교회 (Jimma International Church, Jimma, Ethiopia)
- 주제: 축복의 통로 -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 대상: 에티오피아 국립 공과 대학 대학원생들 (수단, 르완다 등지에서 온 유학생 포함) 및 현지 사역 한인선교사 부부 (전 강의 영어로 진행)
- 강사: 바나바스김선교사(KIM Mission 대표, 전 국제요양 소속선교사, 미국군 예비군 군목, 자비량 선교사), 김정용 선교사 (대한민국 정부 파견, 에티오피아 짐마 국립공과대학 교수, 한국 KAIST, 서울대 및 텍사스 공과대 박사Ph.D, UT Austin, 김 미션 파송 자비량 선교사)

[업그레이드 된 퍼스펙티브스 -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세미나]

KIM Mission (Korean International Ministries)은 지난 2015년, 그동안 우리가 14년 간 집중 보급해 온 미션 퍼스펙티브스2 한국어 세미나를 정복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그 이름을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세미나]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미션 퍼스펙티브스 세미나의 정확한 영문 이름은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이고 그 의미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양성 운동을 위한 (선교) 관점들" 이란 뜻). 우리 KIM Mission동역자들은 대부분 이 세미나를 여러 차례 수료하고 강의해 온 헌신된 평신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5년여 동안 이 세미나를 더욱 새롭고 한국인들의 선교 경험에 맞게 업그레이드 시킬과 동시에 그 타이틀을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양성 운동 (The World Christian Movement)"으로 변경하면서 실 생활과 각자가 섬기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통한 선교현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 세미나를 진행한 여러 미주한국교회들이 놀라게 부흥하며 선교에 헌신하는 모습과 이 운동을 위해 개별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김 미션의 평신도 이사진 한 분 한 분의 헌신 이력 증명합니다. 우리 KIM Mission은 이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세미나]를 복미주한국교회와 전 세계 디아스포라 한인사회, 그리고 여러 선교현지 선교사님들에게 찾아가 보급하고 섬기는 일에 더욱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단계를 통해서도 계속 보급되고 있는 기존 한국어 [미션 퍼스펙티브스 세미나]도 적극 후원 협력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된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Seminar]는 4가지 선교관점들 (Perspectives) 플러스 '21세기 세계 선교의 2가지 특징들 Trends'와 '한국(조선교회) 초기 선교 역사에서 배우는 선교전략' + '90여개 국 선교지를 직접 탐방하여 연구/분석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실제적인 지역교회 및 선교사를 위한 선교 컨설팅' 등을 포함합니다.

김 미션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세미나는 국내외 어디든지 찾아가서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김 미션 동역자들은 대표로부터 평의원까지 모두가 자비량으로 섬깁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운동 World Christian Movement 이 전 세계로 확산 될 수 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외치던 피터 웨그너 Peter Wagner 박사의 말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라고 외친 현대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의 좌우명이 우리를 두려웁합니다.

KOREAN INTERNATIONAL MINISTRIES (KIM MISSION) www.KIMMission.org
* 연락처: 김 미션 본부 (626. 354. 2294 혹은 213. 215. 9834), E-mail: 1020miracle@gmail.com



시론

사슴나무골에서(33): 올림픽 메달과 국가의 품격



박동서 목사 (엘크그로브 가스펠교회)

올림픽 게임은 지난 2주 동안 극심한 무더위를 잊을 만큼 온 국민의 시선과 관심을 사로잡았을 정도로 흥미로웠던 게 사실입니다. 탄핵을 당한 대통령과 지카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선수들이 불참을 선언할 만큼 브라질은 불안하였고, 서방 언론들은 과연 하계 올림픽이 무사히 치러질 수 있을지 의구심으로 가득 찬 보도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예상대로 예산 부족으로 인해 경기장 공사는 문제점투성이였고, 경기 개막일 이전에 모든 공사를 끝낼 수 있을지 회의적이었습니다. 선수촌 숙소에서는 수도물이 나오지 않고 하수도가 막힐 정도로 날립공사의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미 대륙 최초로 개최되는 올림픽을 어떻게 해서든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의지와 열망은 국가의 총체적 위기 속에서도 국민들을 하나로 단합하게 하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장 적은 돈으로 선진국이 아닌 나라도 얼마든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는 전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초반 남녀 양궁 단체와 개인 모든 종목 석권함으로써 축제 분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양궁 선수들을 후원한 기업과 협회까지 온 국민들의 칭찬과 감사를 받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충분한 지원과 후원도 없이 다른 종목에 출전한 선수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기도 하였습니다. 금메달을 예상했던 세계 랭킹 1, 2위를 자랑하던 선수들은 거의 하나같이 4강에 이르기도 전에 어처구니없이 탈락하는 이변 아닌 이변들이 속출하면서 온 국민과 심지어 경기를 지켜보며 응원하던 해외 동포들마저 가슴을 쓸어내리기 일췌했습니다. 태권도 중주급급계 최선을 다해 싸우준 선수들과 마지막 순간에 116년 만에 다시 생긴 골프 종목에서 엄지손가락 부상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고 침착하게 금메달을 차지한 박인비 선수의 승리는 전 세계의 매스컴을 장식하며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몸과 마음과 열정을 다해 땀 흘리며 훈련에 몰두했던 선수들의 노력으로 동북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이 208개국 참가팀 가운데 종합 순위(금메달 기준) 8위를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전체 메달수로는 11위였습니다. 미국은 금 은 동 메달에 관계없이 전체 메달 수로 국가별 순위를 정해서 보도하는 전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은메달을 받거나 동메달을 받았다고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을 흘리는 선수들이나 가족들은 찾아보기가 힘들습니다. 유독 한국과 같이 금메달만 대우를 받는 나라들은 국가별 순위도 당연히 금메달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가령 금메달 1개만 딴 나라(피지, 54위)가 동메달 4개를 딴 나라(노르웨이, 74위)보다 월등히 순위가 높게 됩니다. 모든 뉴스 미디어들도 금메달 받은 선수에게 집중하다보니 그 수많은 선수들 가운데서 아깝게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받은 정말 훌륭한 선수들은 이름조차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1등만 인정받는 사회, 금메달만 환영받는 국가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미국이 메달 포상금도 적고, 영국 같은 나라는 아예 없어도 어떻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국가의 명예를 위해 그토록 열심히 싸울 수 있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지 곰곰이 따져보아야 합니다. 끝없이 도전하는 자신과의 싸움에 성적에 관계없이 따뜻한 응원과 박수를 보내는 국민과 언론, 그런 선수들에게 조건 없이 꾸준한 투자와 지원을 하는 국가와 수많은 기업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메달 수에 따라 교만하지 않고 메달의 종류에 따라 선수들의 노고를 폄하하고 차별하지 않는 국가와 국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부터 구원받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과연 천국이 있을 때, 교인 수 10명밖에 안되는 교회에서 온 교인이 함께 기도하고 섬기며 불신자 한 명을 전도하고 구원받게 한 것과, 교인 수 1000명 되는 교회에서 이웃 교회의 기존 신자 200명을 자기 교회로 출석하게 만들며 교회 성장을 자랑하는 것 어느 쪽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일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단순 숫자 놀음으로 200명은 당연히 1명보다 많고, 새로 등록한 십일조 잘 내는 타 교회 직분자 10명이 주일 헌금도 간신히 내는 연약한 교인 100명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목회자 과연 성공한 목회일지는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을까요. 목회 사역 여건과 재정이 극도로 어려운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끝까지 소명과 확신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바른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기원해 봅니다.

tdspark@gmail.com

러시아경제 비틀, “붉은색 향수” 고조

뉴스위크, 사회안전망 제공하던 옛 소련 공산주의 지지 보도

블라디미르 오부호프스키(23)는 이오시프 스탈린에 관해 이야기할 때면 깊은 경외심에서 목소리가 저절로 낮아진다. 그는 아직 너무 어려 소련 독재자 스탈린 치하의 삶을 알지 못한다. 사실 공산주의가 된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크렘린 꼭대기에 다시 한번 붉은기가 펄럭이길 간절히 기대한다. 옛 소련 공산주의 청년 정치조직 콤소몰의 현대판 단체를 이끄는 오부호프스키는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체제 아래서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금의 러시아 정부는 소련이 건설한 모든 것을 전부 파괴했다.”

옛 소련 시절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러시아인이 오부호프스키만이 아니다. 소련 붕괴 후 사반세기 이상이 지났지만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사상의 인기는 수그러들줄 모른다. 옛 소련 시스템이 제공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향수가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국민 다수를 극빈 상황으로 몰아넣는 경제 위기로 고전하는 상황에서 오는 9월 18일 총선을 앞두고 공산당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뉴스위크는 최근 경제 침체에 따라 러시아에 점점 고조되고 있는 옛 소련 시절에 대한 회고와 더불어 돌아가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고 보도한다(VLADIMIR PUTIN'S RED SCARE? INSIDE RUSSIA'S RESURGENT COMMUNIST PARTY)

올가를 총선 승리를 노리는 공산당의 정강정책은 무엇보다 천연자원과 담배·술 산업의 국유화다. 사회 지출을 늘릴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또 공산당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0여년 전 도입한 13% 일률 과세를 누진세율로 대체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공산당 지역의원 겐나디 주브코프는 “최저 임금을 받는 환경미화원이 신용 감부와 똑같은 세율을 적용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엔 동시베리아 이르쿠츠크 주지사 선거에서 공산당 후보였던 세르게이 레브첸코가 집권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의 후보를 물리치고 선출됐다. 그 사



볼셰비키 혁명일을 맞아 공산당 추종자들이 반 푸틴 대통령이 그려진 배너를 들고 성 페테스버그 광장을 걷고 있다

인 그가 ‘무릎 꿇은 러시아를 일으켜 세웠다’고 칭송한다. 그러나 볼셰비키를 포함해 마리엘 주의 모든 곳에서 그런 거창한 주장이 엄연한 현실에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

마리엘 주의 또 다른 공산당의 원 후보인 세르게이 카잔코프는 “지난 15년 동안 러시아에선 공장이 문을 닫았고 도로가 황폐해졌으며 많은 사람이 집을 장만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지금도 옛 소련 시절을 기억한다. 국가가 아파트를 제공했고 모든 국민에게 일자리가 있었던 시절 말이다. 사람들은 그런 일을 쉽게 잊지 않는다.”

그곳의 공산당원들은 고위층의 부패가 이처럼 비참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마리엘 주는 러시아에서 여섯 번째로 가난한 지역으로 평균 월급이 고작 2만2000루블(약350달러)이다. 볼셰비키에겐 급여가 더 낮다. 낡은 스포츠센터에서 파트타임 경비원으로 일하는 중년의 스베틀라나는 “월 5000루블을 버는데 공공요금만 1만 루블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지역의 많은 사람처럼 그도 푸틴 대통령이 이끄는 통합러시아당을 좋게 보지 않는다. “우린 당연히 공산당을

올가를 총선 공산당정책, 천연자원·담배·술 국유화 누진세율 내세워 푸틴정부 고위층 부패 공격, 대중과 보조 맞추려는 의도

한 부패결정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에 관해 더 잘 안다. 그러나 공산당은 러시아 의회에서 두 번째로 직접 선거제를 재도입한 이래 푸틴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가 패한 일은 처음이었다. 현지 공산당 운동가들에 따르면 레브첸코의 득표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크렘린 편을 드는 선거관리위원회조차 여당 후보의 승리를 조잘할 수 없었다.

지난 5월 모스크바 소재 여론조사 기관 레바다센터(러시아에서 여론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널리 인정된다)는 공산당의 지지율이 지난 4월 15%에서 5월 21%로 6%포인트 늘었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레바다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인의 50% 이상은 옛 소련식 계획경제로 돌아가기를 원했다.

서방 세계는 크렘린을 비판하는 반체제 인사로 지난해 암살당한 보리스 넴초프나 카리스마 강

한 부패결정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에 관해 더 잘 안다. 그러나 공산당은 러시아 의회에서 두 번째로 직접 선거제를 재도입한 이래 푸틴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가 패한 일은 처음이었다. 현지 공산당 운동가들에 따르면 레브첸코의 득표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크렘린 편을 드는 선거관리위원회조차 여당 후보의 승리를 조잘할 수 없었다.

모스크바에서 약 800km 떨어진 빈곤한 마리엘 주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도시 볼셰비키가 좋은 예다. 이곳의 인프라는 대부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낡았다. 보도 대신 먼지 날리는 오솔길, 움푹 패인 도로, 무

너져가는 공공시설 등. 9월 총선에 출마한 공산당 소속 후보 안드레이 칼루킨은 길게 타 끌려간 낡은 건물 앞에서 “이곳이 우리 영화관이었다”고 말했다. “이름이 ‘조국’이었다. 3년 전에 불났는데 다시 세울 돈이 없는 것 같다.” 러시아의 경제난을 불탄 극장에 빗댄 표현이었다.

푸틴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늘 그렇듯이 러시아의 오랜 지도자

지지한다. 지금 우리가 사는 꼴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 있겠나?

최근 들어 러시아 공산당의 메시지는 더 날카롭고 초점이 명확해졌다. 국가적인 부패 문제에서 특히 그렇다. 크렘린도 인정하듯이 러시아는 부패로 연간 약 300억 달러의 손실을 입는다.

(5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 편집국장: 유원정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66(편집국) /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 /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
·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1986-2016 30th Anniversary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2016년 가을학기 학생모집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Theology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Counseling, Education, Music, TESO, M.Div, MBA
-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usic, Doctor of Leadership, Doctor of Ministr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J-1 Visa Sponsor 허가

- Exchange visitor Professor and Research Scholar Programs 교환교수, 연구원, 선교사
- Exchange visitor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Internship Programs 대학생 교환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Midwest University는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을 위한 J-1 Visa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스폰서로 지정 받았습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각 기관의 연구원,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동안 본교에 와서 연구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교환학생으로 본교에 와서 학점을 취득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으로 미국의 현장 경험을 쌓을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J비자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jvisa@midwest.edu)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입니다.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703)626-8712
E-mail: wdc@midwest.edu, ykko9191@yahoo.com

공조 통해 IS의 동남아 확산 막는다!

(1면에서 계속)

싱가포르 내무부는 지난 8월 10일 성명에서 "테러리스트 네트워크의 초국가적 성격과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교묘한 인터넷 홍보전을 감안하면 국경을 쉽게 넘지 못하도록 하고 석방되는 테러범들을 재 포섭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테러 관련자 생체 정보 공유 조치는 말레이시아의 아마드 자히드 하미디 부총리 겸 내무장관과 싱가포르의 산무감 내무장관이 합의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반테러 국제회의에 참석한 두 장관은 단독으로 양자 회담을 갖고 동남아에서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테러 상황을 논의하면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 이웃나라들의 정보기관 사이에 협력 강화를 모색했다"고 성명서는 밝혔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사이에 합의된 조치 중 중요한 두 가지는 잘 알려진 테러단체 대원과 테러로 기소된 인물의 지문을 포함한 생체 정보를 체계적으로 교환하는 것과 제도화된 실무 차원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폭력적 급진화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을 공유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 8월 5일 인도네시아 리아우 제도의 휴양지 바탐 섬 일대에서 현지 테러조직 '카타바 GR' 조직원 6명이 체포된 이래 이 지역에서 대테러 노력을 배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도네시아 경찰에 따르면 체포된 용의자들은 바탐 섬에서 로켓탄을 쏘 약 20km 떨어진 싱가포르의 유명한 마리나 베이를 공격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보이 라플리 아마르 인도네시아 경찰청 대변인은 "이들의 은신처에서 다수의 무기를 발견했다"며 "이들은 IS의 동남아 출신자 부대인 '카타바 누산타라'의 지도자 바룬 나임의 도움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싱가포르를 표적으로 하는 로켓탄 공격은 계획 단계였다고 밝혔지만 용의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체계를 이용해 로켓탄을 쏘

렐 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와 관련해 국경단속 및 내부 경계 태세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 내무부는 "테러 음모가 확인된 이후 이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연루자를 색출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당국과 밀접히 공조한다"면서 "이번 음모는 싱가포르를 표적으로 하는 테러 위협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엔 싱가포르 경찰 당국이 자국에서 테러를 모의한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8명을 체포했다. IS 추종자로 알려진 이들은 '방글라데시 이슬람국가(ISB)'라는 단체를 조직해 테러를 모의한 혐의를 받았고, IS에 합류하



기 위해 시리아나 이라크로 갈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지하 약 1000명도 이 지역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그들은 시리아와 이라크에 가서 IS의 전쟁에 참여했다가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 내무부는 인도네시아에서 기소된 테러범 수백 명이 향후 몇 년 사이에 석방된다는 사실이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라 산무감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덴코 위란토 안보장관과도 회담을 갖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문제를 논의하면서 테러에 맞서 싸우려면 중요한 정보 교환이 시급하다는 점에 합의했다.

아울러 발리 반테러 국제회의 참석자들은 IS가 배후를 자처한 지난 1월 자카르타 도심 폭탄테러 사건을 예로 들면서 동

남아 지역에서 중동 테러단체의 지원을 받는 테러가 빈번해지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국들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연설에서 산무감 장관은 "테러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엄격한 보안 조치는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산무감 장관은 "싱가포르나 동남아 지역에서의 대테러 작전은 위협요인 프로파일로 의존하는데 그것이 계속 변하고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늘 최고의 경계태세를 갖출 수는 없다. 아울러 싱가포르에 있는 인도네시아에 있던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무감 장관은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며 "중요한 정보 공유를 위해 이웃 나라들 사이의 정보기관들과 요원들이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통신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가 직면한 테러 위협만이 아니라 새로 급진화된 자, 분쟁지역에서 IS에 합류해 전쟁에 참가한 뒤 돌아오는 자, 과거 테러범으로 수감됐다가 석방된 자 등 자생적 테러리스트의 도전을 서로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회의에서 연설한 말레이시아의 하미디 부총리는 "현재 말레이시아는 테러단체가 자신들을 홍보하고 급진 이념을 전파할 목적으로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집중 활용한다는 사실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하미디 부총리는 "그들의 주장이 사이버 공간에 넘쳐나면서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은 그런 이야기가 사실이며 테러리스트들이 진짜 종교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다고 믿는다"고 말하고 "IS의 교묘한 홍보전을 무력화하고 그들보다 두세 걸음 앞서려면 전략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라 말레이시아는 조만간 디지털 전략통신부와 메시지 대응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고 꼭 해야만 하고, 실제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에 관계없이 그저 걸모양만 그럴듯하게 꾸며 이력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성공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때때로 그런 전략이 먹힐 때도 있긴 하다. 하지만 대개 다른 이에게 본보기가 되는 훌륭한 삶은 그렇지 않다.

잠깐 자선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하는 시늉만 하면 입학사정관의 눈을 피하기 어렵다. 당연히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7면으로 계속)

원로칼럼



박종순 목사 (총신교회 원로)

목회와 회의(중)

회의, 의견 조율을 위한 장

회의란 다수결을 근간으로 삼을 때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소수 의견일수록 존중하고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내 눈에 흠이 들어가지도 안 된다'며 다수결 원칙을 외면하고 아집과 고집과 생트집으로 일관하려는 소수자 내지는 특정인이 있다면 그야말로 민주적 시민이 아니다.

어떤 의제를 결정하려고 할 때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과의 사전 조율은 바람직한가? 언제나 문제는 두 가지 때문에 일어난다. 하나는 실제임을 과시하고 힘을 구사하려는 특정인과 그를 예외한 사람들의 부정적 역할이다. 혼자 힘의 약하다 싶으면 힘을 모은다. 그리고 그 힘으로 의사결정 방향을 회전시키려 든다.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개인을 만나 타협하거나 조율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차선위반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일이 관행화되면 그들은 패자를 부를 것이고, 패자에 그런 행동이 반복되기를 바람직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뒷거래를 통해 해법이나 점점을 찾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율령 현상이 고착되면 다른 쪽에서 전혀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특정인이나 그를 예외한 그룹과의 사전 조율이나 타협은 피하는 게 좋다.

두 번째는 평소 자신이 따돌림 당하고 있다는 소외자들의 문제다. 그들은 의사결정 내용이나 경중에 상관없이 구경꾼의 자리에 선다. 그러다가 자신의 입을 열어야 된다는 판단이 서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부정적인 쪽의 편을 들게 된다. 교회란 다양한 편차를 가진 사람들의 집합공동체에서 개인이 따돌림 당한다든지 직무에서 소외당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일할 만한 사람이 일하는 것이다'라며 힘 있는 사람들 쪽으로 결정과 역할이 쏠리다보면 소외자들에게 상처가 된다. 그리고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나이가 더 두꺼워지게 되면 그들은 반대와 부결 쪽에 손을 들게 되고 자신이 당한 소외 감정을 터뜨리게 된다. 그런 면에서 교회 섬기는 사역에 편차나 차별을 둘 필요는 없다.

교회 일이란 반드시 저명인사나 전문가여야 할 이유도 없다. 예컨대 교회재정운영이나 관리팀을 구성할 때 은행 총재나 은행장, 지점장이나 경제학 교수들로 팀을 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들이 비전문가들의 열성과 책임성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교회는 섬김과 역량의 소외계층이 많으면 좋지 않다.

교회 일은 경우에 따라선 능력과 경험, 전문성과 노하우보다 신앙과 충성, 성실과 책임, 정직과 순종이 더 값진 사역의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이 일 저 일로 섬섬한 사람이 많아지면 좋지 않다. 상한 감정이 언덕처럼 쌓이면 넘어서기 어려운 산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경우 가끔씩 토요일 저녁 회의는 피했다. 주일 준비를 위해서이기도 했고, 행여라도 회의 과정이나 결과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면 주일 예배는 물론 설교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었다. 설교자가 자신의 감정 조절에 실패하고 설교 속에 감정입의 틈새를 만들면 그 설교는 흔들리거나 공격적이거나 해선 안 될 말을 쏟아 내게 된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한 시간 내외로 제한하고 회의는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2-3일씩 연장한다.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회의는 짧을수록 좋다. 그렇다고 회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평소 필자가 지킨 몇 가지 원리가 있다.

잡음 없는 회의 원리

1)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교회도 목회도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역이시다. 모든 회의 역시 예수님이 의장이시다. 당회장도 당회원도 교회 주인이 아니다. 그렇다면 담임목사인 당회장 자신부터 정도를 벗어나면 안 된다. 제 아무리 필요한 안건이라도 절제나 의결과정이 정도를 떠나기 시작하면 반드시 파행과 맞닥뜨리게 된다. 정도란 성경이 밝히는 노선을 말한다.

어느 교회 당회 이야기가 떠오른다. "목사님은 왜 결핍하면 회의 때마다 성경구절을 댈니까?"라는 당회원에게 "목사가 당회에서 성경구절을 대지 않고 훈장전 구절을 댈까요?"라고 답했다고 한다. 회의에 임하는 사람들, 담임목사를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는 아집을 버리는 게 좋다. 이 일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성경과 맞는가? 그리고 교회에 유익한지를 고려해야 한다. 철저하게 '나의 원대로 마음시키고' 적용되어야 한다.

정도를 걷는 사람은 수단이나 방법을 동원할 수 없다. 정도 자체가 최상의 방법이며 방편이기 때문이다.

iamcspark@hanmail.net

(1면에서 계속)

사실 제가 YMCA를 통해 인연을 맺은 아이들은 저희 또래가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어주기만 해도 정말 좋아하고 즐거워해요. 여권도 필요 없고, 세관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도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가 들려준 주변의 이야기들은 현행 입학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해온 이들이 오랫동안 지적해 왔던 사항이다. 중고등 학생들 사이에서 사실은 그저 '미지의 세계로의 탐험' 정도에 불과한 여행을 대안

한 봉사활동이라도 한 것처럼 꾸민 뒤 명문대학에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나 이력서에 그런 경험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집어넣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 있다.

가난한 나라에서 목격한 가난과 힘든 삶은 그 학생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그곳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커운 공감 능력은 과의 활동을 통해 기른 정절 향방에 자리 잡는다.

이런 상황이 더 우려스러운 건 지금과 같은 입시 과정을 겪은 학생들이 남들이 다 하는 일이라면 특정 시기를 놓치지 않

담임목사 청빙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는 동양선교교회에서는 목회의 비전과 소명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실 담임목사를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자격

1. 감리교, 성공회, 장로교, 침례교, WEMA(세계복음선교연합회)에서 안수 받으신 분
2. 정규 신학대학 이상 졸업자, 목사 안수 후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분
3. 브라질 선교에 열정과 사명을 가지고 계신 분
4. 복음적인 교리가 분명하신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사진첨부, 학력, 목회 경력, 일반 경력)
2. 목사 안수 증명서, 신학대학 졸업증명서 및 최종학위 증명서 각 1부
3. 목회 비전 계획서 1부 (목회동기, 철학, 비전, 바람직한 교회상)
4. 자기 소개서 (본인 및 사모를 포함한 가족포함·가족사진 포함)
5. 최근 6개월 이내의 설교 동영상 2편 (포어 설교 가능하신 분은 1편은 포어 설교 제출)
6. 연령 (40~60세)
7. 추천서 2부 (각 추천인의 밀봉 날인과 추천인 연락처 요망)
8. 건강 진단서 (최근 3개월 이내의 것)

제출방법

1. 우편주소 : R. Mamoré 71 - Bom Retiro, SP - Brasil CEP : 01128-020
2. E-mail : andrejhong@hotmail.com(Cel 55-11-99126-8574) 청빙위원회 서기 홍정표
3. 서류마감 : 2016년 9월 30일

기타사항

1. 제출서류는 이메일로 먼저 보내주시고(첨부파일 : 서류 - PDF파일 형태, 설교 동영상 - 동영상 파일 혹은 MP3), 우편(마감일 도착 전에 한함)으로도 보내 주셔야 합니다. 이메일로 모든 서류를 보냈음을 확인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2. 봉투에는 반드시 '담임목사 청빙 지원 서류 제출'으로 표기 부탁드립니다.
3.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서류심사에 통과된 분은 추가서류와 면접요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파울루 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담임목사 청빙

Haddonfield, New Jersey 에 위치한 뉴저지 동산 장로 교회에서 신실한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South NJ)

지원자격

- 개혁주의 신학과 보수 장로 교단 소속 신학교 졸업하신 분
-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목회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목사안수 후 3년 이상 목회경력이 있고 이민목회와 2세 교육에 사명감과 비전을 가지신 분
- 한국어와 영어로 설교가 가능하신 분

제출서류

- 신학교 졸업 증명서와 목사 안수 증명서(Certification of Ordination)
- 자기 및 가족(사모) 소개서, 가족사진
- 목회 계획서
- 최근 설교 동영상 2 회 또는 설교 동영상 볼 수 있는 홈페이지 링크
- 기타 목사님 소개에 도움이 될 보조 자료

제출처 및 제출 마감일

- 서류는 우편 혹은 이메일 첨부파일 방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필요 시 추후 보완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자세한 사례 및 제반 청빙 조건은 서류 심사를 통과하신 분에 한해 공개합니다.

[접수 및 연락처] E-Mail: dongsanchurch@yahoo.com
접수마감: 2016년 9월 30일

뉴저지 동산 장로 교회 청빙위원회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넉넉해 들어온 복을 찬사람

얼마 전 한국 일간 신문기사다. 40대 이상의 주부들에게 앙케트 조사를 했는데, '남편이 월 천만 원을 벌어서 준다면'이란 질문이었다. 그 정도 벌어서 준다면 남편이 혹 부정행위를 저지른다 해도 참고 살겠다고 답한 주부가 100%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시대 돈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알 수 있다.

이테리에서 보면 축구선수들의 애인이나 부인들은 당대 최고의 미녀들이다. 설명 아프리카에서 온 선수들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설명의 여지가 없는 돈의 힘 때문이다. 무한경쟁시대에 물질의 파워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부부사이에서도 아내가 큰돈을 번다면 남편은 아내를 여왕 모시

듯 할 것이다. 그만큼 돈의 위력은 설명이 필요 없는 시대다. 아는 조카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아내에게 일하라고 내몰므로 주유소에서 알바를 했다고 한다. 신혼 초에 말이다. 참 심하다 싶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청년들도 구라파 사람들처럼 타산적이 되었다 싶다.

수년전 포르투갈의 구 도시 포르투(Prato)에서 모임을 마치고 시내를 구경하던 중, 어느 바(Bar)를 안내 받았다. 그 바는 아래층은 커피를 팔고 이층에는 책이 진열되어 있어 차를 마시며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설계된 독특한 곳이었다. 그런데 안내자의 말에 의하면 이 바에서 그 유명한 해리포터를 쓴 작가 조앤 롤링이 남편과 함께 자주 와서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던 곳이라고 한다. 그녀는 1991년 이 바에서 그 유명한 해리포터를 쓴 작가 조앤 롤링이 남편과 함께 자주 와서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던 곳이라고 한다. 그녀는 1991년 포르투에서 영어 교사를 하던 중 텔레비전 저널리스트인 조지 아란테스와 만났다. 그리고 다음해인 1992년에 결혼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사랑은 오래가지 않았다. 결혼 다음 해에 딸 제시카가 태어났

지만 남편과의 불화로 4개월 된 딸을 데리고 그녀는 쓸쓸히 영국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무일푼으로 귀국하여 여생생이 사는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 정착해야 했다. 아마 남편은 아내에 대한 미래를 내다보지 못했기에 한 마디로 별 볼일 없는 여자로 여겼었다 싶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듯이 말이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도 배우 시절 인기 있던 아내에게 버림을 받았던 것처럼 말이다. 만일 아내가 장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사람이라는 약간의 가능성을 보았다면 얼마든지 마음을 추수를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설명 헤어진다해도 최소한의 성의를 보였을 것이고, 자신의 딸을 위해 부유 값이라도 지원하였을 텐데 싶다.

조앤 롤링은 영국으로 돌아와 마땅한 일거리를 찾지 못해 극빈자에게 주는 돈을 받아야 했고, 생활고로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딸을 바라보며 고난을 이겨나갔다고 한다. 그녀는 미혼모로 주당 15불 정도의 보조금으로 연

명하면서 대학 때 시작했던 글쓰기를 다시 하여 결국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완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책을 출판하려고 12개의 출판사에 제출했지만 어느 출판사도 응하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겨우 저작권 대행업체를 만나 어렵사리 책을 출판하게 되었고, 책이 출판되자마자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런 것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 싶다. 독자들의 놀라운 성원을 입어 해리포터는 시리즈로 7권이 나왔고, 영화로도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었다. 영화관 입장권 판매로만 한화 6조7천7백억에 이르는 엄청난 수입이었고, 책은 무려 4억5천만부가 판매되었다. 이런 대중적 인기를 힘입어 그녀의 재산은 1조 169억원(2010년 통계)이라고 한다. 또한 그녀는 2013년,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3위에 오르기도 했다(다음 백과사전 참고). 그녀는 지금 온 세계의 유명인사가 되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전 남편 아란테스는 어떤 심정일까? 조금만 참고 견디었으면 그는 아내 때문에 세계적 명사가 되었을 텐데 말이다. 자신이 차버린 아내를 생각하며 그녀와 단골로 찾았던 그 바(Bar)에서 쓰디쓴 커피를 훌쩍거리고 있을까? 경기불황으로 낡은 건물들을 치장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민낯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도시 포르투, 그 녹진한 시내를 걸으며 말이다. 조금만 참아냈으면 자신이 몸담았던 텔레비전 방송국을 통째로 살 수도 있었을 테고...

넉넉해 들어온 복을 차버린 사람. 조금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선서한 결혼을 끝까지 지켜내고, 아내를 사랑하고 지켜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 더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인생들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넉넉해 들어온 복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chiesadiroma@daum.net

푸 / 른 / 초 / 장

서삼정 목사
(아틀란타 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의 관대하심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알지 못하면 늘 불안하고 쫓긴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부족한 것투성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게 해주신다. 일군으로서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이 오늘까지 일 시켜 주신다. 이는 하나님의 관대하심 때문이다.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다. 이 시편에는 그가 체험한 하나님의 관대하심이 절절히 표현되어 있다.

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보다 더욱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을 씌우신다고 하셨다(3-4절). 범죄해도 죄악을 사해주시니. 병들었을지라도 고쳐주신다. 생명이 파멸에 직면했을지라도 구원해 주신다. 악한 자에게 억압과 억울한 일을 당할

실수도 부족도 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덮어 주셨다. 자신의 모습을 한번 쳐다보라. 옆 사람의 모습도 쳐다보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관을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관을 쓰고 있다.

- 2. 죄인에게 관대하시니. 10-11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

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감사할 뿐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크신다. 우리의 죄와 악은 땅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저 높은 하늘이다. 땅에서 커 보이는 것도 높은 하늘에서 보면 아주 작다. 사람이 마음이 크고 관대한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악이 작아 보인다.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여쭙 사람에게 비교하겠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늘보다 높고 크셔서 죄인에게 관대하시니.

하나님의 관대하심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없이해 주신다. 아비께서 자식을 긍휼히 여기신다. 부모는 자식들이 아무 문제없이 잘 살고 있는데도 괜히 안쓰럽고 긍휼의 마음이 생긴다. 자녀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때는 부모의 마음은 긍휼로 타오른다.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듯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당신이 약해서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라.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듯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니"(13절).

아비는 자식을 긍휼히 여기신다. 부모는 자식들이 아무 문제없이 잘 살고 있는데도 괜히 안쓰럽고 긍휼의 마음이 생긴다. 자녀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때는 부모의 마음은 긍휼로 타오른다.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듯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하나님의 관대하심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

(시편 103편 8-14절)

1. 주시는 것에 관대하시니.

5절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낌없이 주신다. 좋은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것, 우리의 영육 간에 가장 유익한 것을 뜻한다.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다 몸에 다 좋은 것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약한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것으로 주신 줄 믿으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얼마나 관대하신지 예베소서에는 그 풍성한대로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엡1:3),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총만한 것으로 주시고(3:19)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신다(3:20). 때로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

자라도 하나님이 심판해주셔서 우리의 의를 들어내 주신다. 하나님은 좋지 않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명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신다. 독수리는 털갈이 할 때는 동지에서 기다린다. 그러나 털갈이가 끝나면 다시 하늘로 비상한다. 우리도 때로는 침체에 빠질 때가 있고 오래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침체에서 벗어나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비상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우리의 모든

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라."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나 죄인에 대해서는 관대하시니. 죄인에게 관대하심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자주 견책하지 아니하신다. 뭘 좀 잘못했다고 뭘 좀 하지 않는다고 자주 견책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니. 만약에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거나 갚으셨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자가 있겠는가? 하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다(12절). 죄를 멀리 옮겨주시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찾을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하여금 회개케 하셔서 용서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 주신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하시니. 한번 용서하신 것을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대하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다.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3. 우리도 관대해야 한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빌4:5). 스스로에게 관대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관대하게 대해 주시니 우리도 자신에게 관대해야 한다. 자신에게 관대하지 않는 사람은 늘 죄의식, 부족하다는 결핍증에 사로잡혀 있다. (9면으로 계속)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 1. 79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Online Courses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Oct 10- Dec 2 (10월 12일 - 12월 2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eoul, Korea Dec 5-9 (12월 5-9일) PM Pastoral Counseling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Kwanyik Lee

On Campus Courses 2016 가을학기 강의 안내 Sept 19-23(9월 19 -23일) DI 8080 Modern Trends in Global Missions(세계선교동향)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Nelson Jennings Sept 26-30(9월 26 -30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Oct 3-7 (10월 3-7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Research Design(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디자인)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lter & Dr. Stephen Park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교회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생각들을 목회에 집중하다보면 직업병(?)처럼 관련성 여부에 따라 취미와 기호도 확연히 바뀌는 것을 본다. 독서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책은 읽지도 못내지만 고교시절 서점에서 한권씩 사보던 책이 당시 연세대 교수로 있던 김형석 교수의 수필집이었다. 지금도 영혼의 샘물을 길어 올리던 그 책의 제목들을 기억한다. 그는 1920년생이니, 거의 100세에 가까운 연수를 사시는데 최근에도 책을 펴냈다. 출간과 함께 그가 하는 말은, “늙는 것은 내 잘못은 아니다. 가만히 있어도 세월은 흐르게 돼 있다”는 말이 인터뷰 기사로 소개되었다. 덧붙여 “60대에도 공

어르신들이 식사를 겸한 회의로 사택에서 모일 기회가 있었다. 30여명 가까운 어른들이 남녀유별(?)하게 나누어서 이런 저런 나누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고 이를 지켜보는 기회가 있었다. 짧은 식사와 회의의 시간이었지만 아주 가까워서 늙음의 아름다움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함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물론, 이민사회를 살고 계신 어르신들도 한국에 비해서 교육이나 여건이 향상된 어르신들임에도, 이미 자신들의 늙음이 자녀와 젊은 세대들에게 행여 거침돌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것도 또한 어렵지 않은 일이

만한 점수를 줄 수가 없기에, 예상상은 두통이 생기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옛 어른들이 선배가 있고, 스승이 있고, 부모가 계시는 때를 사는 것이 복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결국, 철든 어른이 된다는 것, 아름다운 늙음을 이룬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말이니겠는가?

뿌리 깊은 백향목의 향기같이 이처럼 복된 어른되기가 쉽지 않음을 알기에, 교회 안에서 함께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보면 그 늙음이 너무 좋아서 만족한 행복을 느낀다. 어르신들을 생각할수록 마음이 참 좋다. 목회의 큰 기쁨을 주시는 가장 변함없는 지원군들이다. 새벽마다 항상 한결같

족, 게다가 한 교회에서 평생을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기도하고 충성한 일꾼들을 마지막 순간을 낮은 세상 문화 속에서 맞이하도록 해야 한단 말인가?하는 것이다.

늙음에 대한 존중은 축복의 통로

예전에 교회가 고아원의 아이들을 나누어 입양한다면 한국의 고아원은 없어지고 아이들은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복되게 자라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국가도 퇴역군인들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그들의 삶의 마지막까지 그 영광스러움을 지키도록 돕는 것을 본다. 교회는 어르신들의 늙음의 아름다움이 교회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교회)



늙음에 대한 세상의 불관용에 대하여 - 늙는 것이 내 잘못은 아니지 않는가? 세월은 흐르게 되어 있다 -

부하며 일하는 사람은 성정을 멈추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강제징용과 한국사의 여러 갈래를 다 지나면서도 지나간 세월에 대한 회한이 아닌, 늙음을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그의 삶을 대하는 자세가 경이롭기만 하다.

그리스도안에 빛나는 늙음의 미학

이처럼 김형석 교수와 같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노학자의 빛나는 늙음이 있는 반면, 지난여름 한국 방문시 듣게 된 소식은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었다. 부모를 출대한 불효자에게 증여받은 집을 반환하라고 법원이 판결한 일에 대한 것이었다. 증여 조건으로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겠다는 각서, 이른바 효도계약서를 근거로 부모가 재산반환을 요청했고 법원이 부모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것이다.

내용인즉, 재산 물려줄 테니 자식들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해달라는 조건이었다. 가장 많이 들어가는 항목이 정기적인 방문, 즉 찾아가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큰 병 걸렸을 때 병원비 내라는 등의 비상시 목돈 지급, 세 번째가 용돈을 달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더불어 부모 자식 간에 이런 계약서를 쓴다는 게 씁쓸하지만, 기왕에 쓰기로 했다면 최대한 구체적으로 쓸 것을 요청하는 방송이었다.

그리고 효도계약서를 쓰는 방법을 꼼꼼히 소개하는 내용이었다. 부모와 자식에 대한 기본적인 관계를 따지기에는 너무 많이 지나버렸다는 안타까운 생각들을 하게 된다. 인간으로서 늙음에 대한 두려움과 보호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배어나오는 시대, 이젠 그 시대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필연적인 대안을 해법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불효에 대한 성경적인 언어를 말하기 전에, 과연 이 시대의 사상은 늙음에 대해 이토록 불관용하다는 말인가를 고민해본다. 김형석 교수의 말대로, 과연 늙음이 잘못된 것처럼 두려움으로 맞이해야 하는 시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인생은 그저 푸른 청춘이어야만 아름다운가? 그렇지 않다. 봄의 꽃향기와 여름의 실룩만큼 가을의 단풍도 아름답고 겨울나무 사이의 연가도 아름다운 법이지 않은가? 성경에도 그런 늙음의 아름다운 미학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빛이 난다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복된 지혜와 늙음의 향기

최근 본 교회 유일한 공식적 연령별 모임인 65세 이상의 노인

었다. 어떤 이야기는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순간이 되기도 했다.

회의는 당신들이 교회에 거주 장수된 존재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기우와 언젠가 누구나 한번은 흠아비 되고 과부가 되어야 할 터인데 그 순간에 대한 두려움과 이를 믿음으로 이겨내려는 의지가 상반되어 비쳐지는 발연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이를 구체적인 열매로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에 애써준지 도움이 될 일을 하자는 결론이었다. 그래서 조금씩 모은 종자돈 회비를 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기관 사업을 논의하는데, 마치 초등학교 고학년에 올라가 처음 학급회의를 하듯이 아주 진지하게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이 었다.

올해 들어 교회에서 친교재정을 줄이게 되어 부담스러운 음식 준비를 위해 손수 김치를 직접 만들어 무상공급하고, 일전의 교회 차량 주차사가 있어서 주차장 버팀목을 구해서 비치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현재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식 식사자리를 별도로 마련해 음식을 배식해 드리는 게 못내 미안해서 식사시간에 줄을 서서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만큼은 참견하며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의 교육적인 가르침과 배식시간을 실제로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만류하게 되었다.

늙음과 어른스러워짐

어르신들을 보면 부모님 생각에 마음에 심중한 울림을 느끼게 된다. 더불어, 가만히 있어도 세월은 흐르게 되어 있고, 늙음은 필연적임은 성경의 진리가 아닌가? 이제는 이 가없는 세월이 지나면 누구에게나 이분들과 같이 늙음의 시간이 찾아올 터인데, 나는 어찌 그날을 맞이할는지 생각도 해보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나는 과연 이분들처럼 주님과 사랑 앞에서 이토록 어른스러움으로 늙음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해본다.

예전에는 선배 목사님들만 보니까 따라가고 열심히 안부전화만 드리면 되던 것이 이제는 후배목사님들에게도 일정하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함을 보게 된다. 부모가 된다는 것도 양육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자식들이 나를 어떤 아버지로 기억할까를 생각해보게 된다. 이런 저런 잔소리들로 아빠를 기억하지는 않을지 내심 걱정이 된다. 그래서 집에서 편하게 입고 말하고 생활하던 것도 조금은 절제가 되는 것을 느낀다. 부모 자식뿐이겠는가? 성도들이 생각하는 목사로서의 나를 생각해봐도 상당한 고민에 이르게 됨을 본다. 만족할

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다 싫다 많았을 그 자리를 지키시는 권사님들. 대화가 막히고 마음이 답답할 때, 어르신들을 청해서 식사하면 격려와 평안한 위로가 충만해짐을 느낀다. 아무런 사건도 없었고, 그저 삶에 연륜 속에 묻어간 감사와 배려의 향기가 다가올 따름이다. 젊은 목사의 연약함이 보일 텐데도 목사라고 내내 겸손함을 보여주신다. 마치, 깊은 뿌리를 내린 백향목의 향기처럼 교회를 복되게 세우는 향기 나는 거룩한 주의 성전의 큰 재목 같은 느낌을 받는다.

기도 외에 달리 더해 드릴 것이 없지만, 감사 감사를 노래한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과 무엇보다 날로 쇠약해져가는 육신을 바라보는 마음의 어려움도 있으실 텐데, 어르신들의 섬김과 배려에 교회가 한없이 따뜻해짐을 느낀다. 우리 모두도 저 어르신들의 연세에 맞서서 이를 날이 올 터인데, 그때 누가든 젊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예전을 드릴 대상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요람에서 천국까지 교회에서

더불어, 교회에서 그 늙음의 시간들을 행복하게 가질 수 있도록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성장을 위해서는 어린 아이와 2세들과 EM 프로그램들을 기본으로 열심히 준비하는데 비해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규모 있는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불비함을 보게 된다. 모든 생명의 시간이 중요하지만 그 절박함의 시점에서 본다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향한 영적생활을 잘 하도록 섬기고 준비하는 일이 더욱 시급함을 보게 된다. 젊은 사람이 많아서 역동적이고 힘이 있다고 쉽게 말하지만 오히려 교회의 은혜를 지키고 기도시간과 예배시간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지 않은가? 외려 그런 분들의 기도의 헌신을 통해서 젊은 세대가 지혜가운데 삶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교회는 어린아이들의 요람에서부터 어르신들의 천국입성에 이르기까지 차별 없이 넉넉한 영적환경을 준비함을 고민해야 하리라 본다. 대개 이민사회에서의 어른들은 마지막 시간을 양로원으로 생각한다. 필자가 섬기는 중소도시에서는 그러한 시설이 부족하기에, 대도시에서 한국 사람들이 모인 곳도 있는 양로원에서 즐거운 프로그램의 혜택가운데 삶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기가 어렵다. 교회가 세상 멀리 타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면, 왜 같은 피부 같은 민

안에서 빛날 수 있도록 돕고 섬겨야 한다. 더 나아가 책임을 질 수 있다면 그 보다 더 영광스러움이 어디 있겠는가? 마지막 묻힐 곳과 나의 장례위원장 목사님이 누가 될 지가 분명하고, 나의 천국환승에배에 올라 파질 찬양의 소리가 선명한 사람만큼 가장 영화로운 인생의 복을 누릴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오늘날 자신의 낡은 부모마저도 먹살을 잡고, 거역하며 살인하는 말세의 때에 남의 부모를 섬겨야 하고 돌보자하면 정신없는 사람 취급하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사람, 교회의 사람으로서 영혼에 대한 간절함과 사랑이 있다면 결코 부모세대에 대한 섬김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해봐라, 무엇보다 늙음에 대해 긍휼과 관용이 없는 그 자신도 반드시 늙음이 이룬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도 언젠가는 말할 것이다. “늙음이 내 잘못은 아니지 않는가?...” 더불어 늙음에 대한 존중은 성경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 가정이 가문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davidnjeon@yahoo.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현재 영상문화의 발달로 한국이나 미국이나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온 정신이 거기에 빠져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계속 컴퓨터에 앉아 스포츠나 영화나 게임에 빠져 있는데 이 영상 문화에 대해 성경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요?
-토렌스에서 LEE

A: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의 이 시대는 IT 산업의 최첨단을 누리는 시대입니다. 작은 핸드폰 안에 전화와 컴퓨터와 사진기와 녹음기와 시계, 후래시라이트, 이메일 등 모든 기능들이 다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 폰만 열면 모든 세계 뉴스와 정보를 다 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빠른 속도시대입니다. 빠른 자가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이 영상문화는 인간에게 거리를 조율하여 말과 문자로 의사소통을 하며 새로운 정보들을 얻게 됨으로 많은 편리함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도 방송설교나 신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에서 전철을 타면 책을 읽는 사람이 많았으나 이제는 95%이상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 문을 닫고 컴퓨터에만 앉아 있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도가 지나쳐서 이러한 영상문화에 거의 중독이 되어 빠져 있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아주 심각한 현상입니다. 매일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불안한 증세를 보입니다. 많은 그리스도

보는 것이 영혼 점령...영상매체 절제할 수 있어야

도인들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여”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성경을 보기보다 핸드폰에 자동적으로 먼저 눈과 손이 갑니다. 이것이 이제는 이상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영상기기가 사람들의 관심과 생각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영상문화는 세속적이고 죄악된 음란한 생각이 찾아오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상매체들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으나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의 전쟁은 영혼 빼앗기 전쟁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장악하느냐의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내 눈이 무엇을 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 눈이 많이 보는 것에 나의 관심이 끌리고 보는 것에 의해 사상이 주입됩니다. 보는 것이 내 영혼을 점령합니다. 보는 것은 무의식의 잠재공간까지 지배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에는 우리의 눈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히12:2)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아침저녁으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각이 찾아오게 되며 하나님의 관점(perspect)에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신적 통찰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성경을 바라볼 때 정건(right sight), 선견(foresight)을 가지게 됩니다.

정원 목사가 쓴 ‘대적기도’란 책을 보면 “눈이 흐리멍덩한 사람은 약한 영의 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의지의 힘이 부족하여 원치 않는 일에 끌려가거나 멍청하게 있다가 약한 영들이 넣어주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약한 영들은 삼손과 다윗의 눈을 사로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했다. 삼손은 들릴라의 아름다움에 빠졌고 다윗은 목욕하는 여인을 보면서 그 영혼의 감각이 일시적으로 망가졌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영상문화가 발달하여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아 가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악령의 공격이 있는 것이며 그것이 이 시대의 혼미한 정신과 어두운 영의 상태와 관련이 있다”(132페이지)고 했습니다.

러시아경제 비틀, “붉은색 향수” 고조

(2면에서 계속)

공산당은 푸틴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지 않았지만 고위 당 간부들은 그의 측근들을 맹비난했다.

또 공산당은 유엔 부패방지협약 제20조를 비준하도록 의회에 압력을 가하는 온라인 청원운동도 시작했다. 공무원이 공식 소득보다 지출을 더 많이 할 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면 자동으로 형사 기소된다고 명시한 조항이다. 러시아 공산당의 모스크바 지부장 발레리 라슈킨은 “푸틴 대통령 측근들이 특별대우를 받으며 횡령과 뇌물 수수를 일삼는다”고 말했다. “요즘의 부패는 러시아의 몸에서 점점 커지는 암과 같다. 도래하지 않으면 러시아의 목숨이 위협당한다.”

러시아 공산당의 겐나디 주가노프 대표는 푸틴 대통령 측근의 부패를 비판하며 서민의 지지를 호소한다.

공산당 하급 운동가들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비판자들은 공산당이 푸틴에 맞설 진정한 의사가 없다고 지적한다. 겐나디 주가노프 공산당 대표가 러시아 최대의 야당을 이끌면서 수백만 달러를 정부에서 지원받는 대가로 상징적인 반대만 하는데 만족한다는 얘기다.

그들은 그 증거로 공산당이 푸틴

대통령의 외교정책과 시민자유를 억압하는 법 제정을 열렬히 지지한다는 사실을 들었다. 저명한 러시아 정치 분석가 드미트리 오레슈킨은 “공산당은 그런 게임 규칙을 오래 전에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공산당의 정부 비판이 급진적 변화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사실을 크렘린이 알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허용된다. 열쇠는 푸틴이 쥐고 있다. 그 열쇠는 바로 돈이다.”

공산당에서 탈퇴한 인사들은 더 심하게 비판한다. 2007년 대규모 반대자 숙청으로 공산당에서 제명된 아나톨리 바라노프는 “지금 공산당은 빈껍데기요 모조품일 뿐”이라고 말했다. “공산당의 정치 프로그램은 가짜다. 아무도 그런 프로그램을 실행할 생각이 없다.”

공산당 간부들은 그런 비난에 분노하며 반박한다. 라슈킨 지부장은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모든 선거에서 우리는 붉은 깃발을 들고 승리를 위해 전진했다”고 말했다. “거리 시위에서도 가장 활동적인 야당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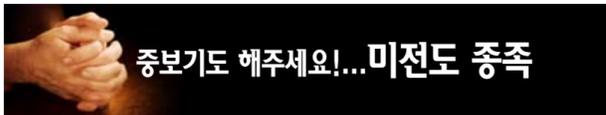
동유럽에선 좌파운동이 현대화한 사회민주주의 사상을 채택했지만 그와 달리 러시아의 현대 공산당은 그런 개혁에 저항했다(좀 더 엄격 진화적으로 변화하려는 시도와 논란 많은 러시아 정교의 포용은

예외다). 레닌과 스탈린의 이미지가 공산당 사무실과 깃발을 지배하며 당의 공식 상징은 여전히 망치와 낫이다. 라슈킨 지부장은 “우린 스탈린과 레닌 등 소련 영웅들의 이름을 영원히 외칠 것이다”고 말했다.

대중의 태도와 보조를 맞추려는 의도다. 스탈린은 소련 국민 수백만 명을 강제노동수용소로 보내 죽게 했다는 명백한 증거에도 여전히 인기가 높다. 우크라이나와 시리아를 둘러싸고 러시아가 서방과 대치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가 많은 러시아인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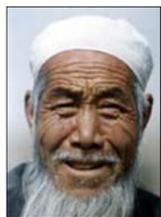
매년 실시되는 여론조사에서 올해 처음으로 러시아인의 과반수(52%)는 스탈린의 유혈 통치를 ‘아마도’ 또는 ‘분명히’ 긍정적인 조치로 생각했다. 청년 지도자 오부호프스키는 “러시아엔 ‘승자를 심판하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스탈린은 누구보다도 더 훌륭한 승자다. 그는 시간과 자신의 죽음, 자신의 적을 물리쳤다. 아무도 그를 심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는 그의 이름이 적힌 깃발을 자랑스럽게 치켜든다.”

결론으로,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내년이면 100주년을 맞는다. 이런 시점에서 러시아 공산당은 역사가 자신의 편이라고 확인하는 듯하다. 오부호프스키는 “조만간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공산당이 다시 집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말레이시아의 후이(Hui)



후이족은 중국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 약 9백만 이상의 인구로 중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무슬림 공동체를 형성했다. 현재 후이족의 약 10,700명 정도가 말레이시아 전역에 살고 있다.

7세기부터 14세기까지에 걸쳐 중국에 왔던 무슬림 상인, 군인들, 관료들이 후이족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다. 무슬림들은 그 지역 중국

인 한족 여성과 결혼해 정착했다. 후이족은 후에 두 차례에 걸쳐 대 이주를 하였는데 첫 번째는 17세기 중반 즈음에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1949년 중국의 공산주의에 의한 군사혁명 시였다. 다수의 후이족은 중국과의 해상 경제활동을 연계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로 이주했다.

오늘날 말레이시아에 있는 중국인들은 가장 큰 무리의 이민자 집단이다. 중국인 중 다수는 불교도이고, 이 점이 말레이시아 사회에서 어울리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나 후이족은 말레이족과 무슬림 신앙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사회에 더욱 쉽게 적응

했다.

삶의 모습
한때 후이족은 농부와 노동자 신분이었지만 현재는 상업과 산업, 서비스 분야에서 더 많이 일을 하고 있다. 거의 모든 후이족들이 도시 혹은 도시 주변에 살고 있으며 대부분 레스토랑, 정육점, 산업, 광업 그리고 무역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후이족의 생활은 일반적으로 모스크(이슬람사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말레이 법은 말레이인을 "말레이 인종에 속한 사람 곧 평소 말레이어를 사용하고 무슬림 종교를 가진 사람"으로 규정한다. 같은 이슬람교를 믿는다 해도 이러한 제한을 넘어설 수 없다. 중국 무슬림의 경우에는 기원의 차이가 주장된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경제적 구조에서 중국인들이 가진 지위를 통해 또한 중국 무슬림 협회와 같은 공식적 기관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후이족을 포함한 말레이시아의 중국인들은 학교, 사회, 경제, 정치적인 조직들을 자치적으로 가지고 있다. 1995년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중국계 중등학교의 수는 60개에 이른다. 이 학교들은 교육의 매개로 영어와 만다린어를 사용한다. 그들은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인 지역사 회로부터 받는 기부를 통해 학교를 유지해야만 한다.

대부분의 말레이인 직업은 정부에 의해 생성된다. 이러한 일자리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말레이어인 바하사 말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후이족은 이러한 요구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후이족 사람들이 말레이어를 안다 할지라도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말레이어를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후이족 사람들은 힘이 넘치고 공격적이며 스스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가지며, 뛰어난 사업적 감각을 가지고 있다. 그

들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다른 중국인들과는 구분되는 관습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돼지, 말, 당나귀, 노새 또는 야생 동물 고기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무슬림 관습에 따라 후이족 여성들은 후이족이 아닌 남성과 결혼할 수 없지만 후이 남성들은 여성이 이슬람교로 개종하기만 한다면 후이족인 아닌 여성과 결혼할 수 있다. 가계는 부계중심이며 가족들은 아버지의 혈통을 따라 구성된다.

신앙
대부분의 후이족은 수니파 무슬림(Sunni Muslim)으로 세계에서 가장 덜 급진적인 무슬림들이다. 말레이 무슬림들은 후이족들이 무슬림으로서 신앙이 부족하다고 종종 후이족에게 분개하기도 한다. 후이족은 "푸르다(Purdah, 여성의 몸과 머리를 완전히 가리는 덮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영화 "예수"와 기독교 라디오 방송이 복음전파에 사용될 수 있으

며, 성서도 그들의 언어로 번역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들 사이에 크리스천으로 알려진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

필요로 하는 것들
종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장이 말레이시아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무슬림을 개종시키는 것은 불법이지만 무슬림들이 그들이 선택하는 누구든지 개종시킬 수 있다. 그래서 후이인들은 박해가 두려워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

무슬림들은 말레이시아에 활동적인 선교기관이나 이슬람 연합을 상징하는 이슬람 단체인 "다크와(dakwah)"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인 무슬림 같이 탐탁치 않은 사람들"을 이러한 조직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후이족들은 그들을 결코 거부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스웨덴 교회, IS 점령지에 드론 띄워 성경 보낸다

스웨덴의 한 교회가 드론을 띄워 이슬람국가(IS)에 의해 박해받는 이라크인들에게 성경을 보내기로 했다. 이라크 북부를 장악하고 있는 IS는 최근 이라크 주민



3000여명을 포로로 잡아 방패파이로 삼고, 이 가운데 12명을 살해하는 등 더욱 잔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8일 영국의 기독교 인터넷매체에 따르면 스웨덴 옅살라의 리베츠오드교회(요아킴 룬트퀴비스트 목사)는 올 가을 드론을 활용해 수천권의 포켓용 전자성경을 보급할 예정이다. 성경은 작은 알약이 담긴 상자(pill-box) 크기로 특별한 동력 없이 스스로 작동한다. 비용은 권당 15달러(약 1만6000원)가 소요되며 이미 후원을 받은 상태다.

요아킴 룬트퀴비스트 목사는 "교회와 신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구원의 좋은 소식을 나누기 위해 성경을 출판하고 번역하며 보급해왔다"며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하는 것이다. 핍박 받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시급하다"고 말했다.

성경 배포 계획에 대한 일부 비판에 대해서는 "정치적 행동이나 테러리즘에 대항하는 영적인 전쟁도 아니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스웨덴의 복음주의 자유교회도 대변인을 통해 "드론을 활용한 성경 보급이 위험하게 보일 수도 있다"며 "그러나 이는 복음의 확장을 위해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생명의 말씀'으로 번역되는 리베츠오드교회는 스웨덴의 은사주의 교회로 1983년 20명의 성도로 시작, 3000명 규모로 성장했다.

유대인들 이슬람성지 방문에 아랍권 강력 반발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이슬람 성지인 알아크사 모스크(이슬람 사원)를 집단 방문하자 요르단과 이집트 등 아랍권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이집트 일간 알아흐람과 이스라엘 매체 하레츠 등에 따르면 유대교 신자 약 400명이 전날 예루살렘 알아크사 사원 부지에 들어갔다. 유대교 명절인 티샤브트를 기념하고자 이들은 이스라엘 경찰의 삼엄한 경호 아래 알아크사 사원 부지 내 고대 사원이 파괴된 곳을 방문했다.

이스라엘 경찰은 알아크사 사원 부지에서 예배를 보려던 일부 유대인들을 저지했다. 이들 중 2명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유대인들이 알아크사 사원에서 예배까지 할 경우 이슬람교도와와의 충돌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한 요르단과 이집트는 강력히 반발했다. 요르단의 이슬람 담당 장관인 와엘 아라비야트는 알아크사 사원 부지를 방문한 유대인들을 "시온주의 극단주의자들"이라고 불렀다. 이번 방문 허용이 "중동에서 종교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와엘 장관은 또 이스라엘 경찰이 현장에서 예배를 보던 이슬람교도들을 "체포하고 구타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은 유대인들의 이슬람 성지 방문을 허용한 이스라엘 당국을 비판했다. 이집트 외무부도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이 종교적 장소의 신성함을 위반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에 이스라엘 경찰은 "무슬림들이 유대인 2명 주위에 모여들더니 현장에서 쫓겨나는 그들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무슬림 3명이 가볍게 다쳤다고 알아흐람은 전했다.

동예루살렘에 있는 알아크사 모스크는 이슬람의 3대 성지 가운데 하나이다. 동예루살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점령한 이후 지금까지 분쟁 지역으로 남아 있다.

알레포 생존 5살 꼬마에 지구촌 '울컥'

시리아 내전 격전지인 알레포에서 무너진 건물 사이에서 구조된 어린이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퍼지면서 지구촌이 충격과 슬픔을 나타내고 있다.



영국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다섯 살 난 남자아이 옴란 다크니시(5)는 17일 연일 폭격이 벌어지는 알레포 카테르지 마을의 무너진 주택 틈에서 다른 어린이 4명과 함께 구조됐다.

알레포 상황을 전하는 알레포미디어센터(AMC)가 공개한 영상에서 맨발인 아이는 온몸에 하얀 잔해를 뒤집어 쓴 모습으로 한 남성의 품에 안겨 구조돼 급급차 안으로 옮겨진다.

구급차 안에 있는 주황색 의자에 앉으면서 드러난 아이의 얼굴 왼쪽에는 이마의 상처에서 흘러내린 피가 잔뜩 엉겨 있고 왼쪽 눈은 퉁퉁 부어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다. 겁에 질렸을 법도 하지만, 소리 내어 울지도 못하고 멍한 모습이다. 얼굴을 숙 문지르고 나서 제 손에 묻은 피를 보고서야 아이는 움찔 놀리면서 의자에 피를 닦아낸다.

알레포에서 벌어지는 참상을 보여주는 아이의 사진과 영상은 SNS를 통해 수천 차례 공유되고 있다. 텔레그래프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다친 시리아 소녀의 사진은 알레포의 공포 일부만 보여준다"는 제목을 달았다.

아이의 M10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 병원 역시 공습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곳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병원 의료진에 따르면 이날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15세 미만 어린이는 13명이다.

2012년부터 반군에 장악된 알레포에서는 시리아 정부군과 이를 지원하는 러시아군의 공습이 계속되고 있으며 반군이 정부군의 포위망을 뚫으려 반격에 나서면서 치열한 교전이 벌어져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남은 진입로마저 끊겨 25만-27만5천명이 사실상 갇힌 동부 지역을 포함해 알레포에서 구호가 필요한 민간인은 200만명에 달한다.

2011년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이후 5년간 시리아인 30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교도소에서도 1만8천명에 육박하는 수감자가 사망했다는 인권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BBC통신에 따르면 국제앰네스티는 고문 생존자 65명과 인턴부 등을 근거로 한 보고서에서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에 대항하는 봉기가 일어난 2011년 3월부터 내전이 이어진 2015년 12월까지 1만7천723명이 수감 중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는 매일 10명 꼴로, 한 달에 300명 이상 사망한 셈이다.

또한 수감자들은 교도관들에 의한 심각한 폭력을 자주 겪었으며 여성 수감자들이 남성 교도관들에게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하는 일도 일어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IS가 불태운 12살 소녀, 엄마 품에서 마지막 말...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집단 IS가 불태워 죽인 소녀가 어머니 품에 안겨 죽어가며 한 마지막 말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5월 18일 영

국 일간 미러는 IS가 집에 불을 질러 극심한 화상을 입고 사망한 소녀(12)의 사연을 보도했다. 소녀는 죽는 순간 그의 어머니에게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란 유언을 남겼다고 전했다.

이라크 모술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소녀의 가족은 기독교인들이었다. IS는 비이슬람인에게 부과되는 '종교 세금'인 '자지야(Jaziyah)'를 받아내든지 쫓아내기 위해 소녀의 집에 갑자기 난입했다.

소녀의 엄마는 "IS가 세금을 내지 않을 거면 여기서 당장 나가라고 명령했다"며 "세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한 후 딸이 지금 사위 중이니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IS대원들은 기다려 주지 않고 소녀가 찢고 있는 욕실에 불을 질렀다. 엄마와 다른 가족들은 모두 불타는 집에서 탈출했지만 소녀는 치명적인 화상을 입고 엄마 팔에 안겨 사망했다. 숨을 거두는 순간 소녀는 "그들을 용서해주세요"라는 말을 남겼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자행하는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에도 믿음을 견고히 지키며 용서하는 기독교인의 사연이 알려지며 많은 네티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 병원에 포탄 쏟아 붓는 잔악함

유엔 국제인권도법은 전쟁 중이라도 의료진이나 환자를 공격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굴이 법이 아니어도 민간 의료진을 공격해선 안된다는 건 국제사회의 불문율이다. 그런데 주요 분쟁지에서 대치가 격해지면서 그런 원칙이 계속 무너지고 있다. 전쟁터 의료구조 활동의 상징적 존재인 '국경없는 의사회(MSF)'가 최근 겪은 수난은 '전쟁(戰場)의 잔악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AP통신에 따르면 15일 예멘 북부 하자주의 MSF 연계병원인 압스병원(정부군의 공습을 당해 의료진 1명을 포함해 11명이 숨지고 19명이 부상했다. 예멘은 2014년 9월부터 이슬람 수니파인 정부군과 시아파인 후티 반군이 내전 중이다. 현재 수니파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정부군을 도와 반군 공격을 주도하고 있다.

MSF는 "공습을 우려해 오래 전에 압스병원의 위치 정보를 정부군과 반군 양측에 통보했다"면서 "병원인 줄 알고도 공격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예멘에서는 지난 1년새 MSF 연계병원 4곳이 공격을 당했다.

MSF에 대한 공격은 시리아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지난 6일 시리아 북부 이дли프 지역에서 MSF 연계 병원인 공습을 당해 의료진 4명을 포함해 13명이 사망했다. 지난 4월말에도 북부 도시 알레포의 MSF 연계병원이 공습으로 파괴되고 의사 2명을 포함해 14명이 숨졌다.

지난해 10월에는 아프가니스탄 쿤드즈에서 미군의 공습으로 MSF 의료진 12명과 환자 10명이 목숨을 잃는 등 아프간에서도 MSF는 자주 공격대상이 됐다.

MSF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전 세계 분쟁지에서 공격을 받은 MSF 연계병원은 80곳이다. 공격으로 의료진이 최소 100명 숨지고, 환자와 보호자 130명이 사망했다.

병원을 공격하는 건 단순히 의도적이다. 공습을 피해 군인들이 병원으로 숨는다고 의심하거나, 생존을 위한 마지막 보루인 병원을 없애 적군이나 적에게 협조하는 민간인이 결국 떠나도록 하기 위해 일부러 공격하는 것이다.

미 유권자 35% "제3후보 투표 고려"

미국 대선에서 유권자의 3분의 1가량이 민주당과 공화 양당의 후보 대신 제3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미 ABC뉴스가 여론조사기관 SSRS와 함께 한 온라인 조사에서 응답자의 35%는 제3당 대선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제3 후보에게 투표하는 게 양당 후보 가운데 자신이 더 싫어

하는 주자의 당선에 기여하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적정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59%였다.

게리 존슨(자유당)과 질 스타인(녹색당) 등 제3 후보에 더해 대선후보는 아니지만 경선에 참여했던 버니 샌더스(민주당-버몬트) 상원의원과 테드 크루즈(공화당-텍사스) 상원의원을 찍겠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이번 조사는 18세 이상 네티즌 231명을 상대로 18-19일 이뤄졌으며 오차 범위는 ±8.1%다.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의 조사에서도 주요 정당 후보들에 대한 반감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0%는 공화당의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에게 절대로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의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을 절대로 뽑지 않겠다는 비율은 45%로 나타났다.

자유당의 존슨과 녹색당의 스타인에게 표를 주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비율은 각각 32%, 23%로 집계됐다. 민주당의 클린턴과 공화당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가운데에도 28%가 자유당의 존슨을 찍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답했다.

클린턴 지지자 가운데 4분의 1가량은 녹색당의 스타인에게 투표할 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스타인을 선택할 수 있다는 트럼프 지지자는 14%로 나타났다. 올해 대선은 과거에 비해 여론조사에서 제3 후보의 지 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미 대선서 영향력 커지는 아시아계 표심

미국 대선에서 아시아계 표심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유권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일부 경합구에선 승부에 영향을 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2일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전체 유권자 가운데 아시아계 미국인의 비율은 4%다. 아시아계는 아직 숫자 면에서 대선의 판도를 바꿀 만큼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평가가 많다. 다만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라 미국 선거에서 점점 주목받는 집단으로 거듭나고 있다.

올해 대선에서 투표권이 있는 아시아계 유권자는 4년 전 선거 때보다 16% 증가한 900만 명에 이른다. 아직은 아시아계 유권자들이 히스패닉이나 흑인보다 대선에서 덜 주목받고 있지만 경합구에선 무시 못 할 힘을 가지기도 한다. 캘리포니아 주의 유권자 가운데 아시아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14.9%나 된다. 네바다(9.0%), 뉴저지(7.0%), 뉴욕(6.3%) 등에서 아시아 유권자가 전체의 5%를 넘는다.

아시아 유권자들의 힘은 2년 전 버지니아 주 의원 선거에서 잘 드러났다. 민주당의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당시 1만8천 표 차이로 재선에 성공했는데 유권자의 5%를 차지한 아시아계들의 지지가 큰 힘을 발휘했다.

대선에서 아시아계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에게 약재다. 올해 대선에서 아시아계의 표심이 트럼프보다는 민주당의 대선주자 힐러리 클린턴에게 더 쏠려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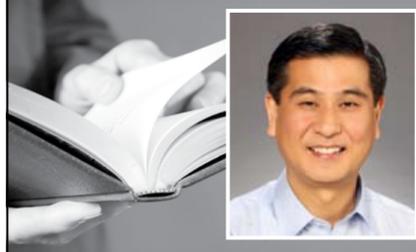
초당파 단체인 'APIA 투표'가 올해 초 실시한 조사에서 아시아계 유권자 가운데 트럼프에게 비호감을 느끼는 비율은 61%였다. 반대로 클린턴의 호감도는 60%를 넘었다. 또 응답자의 40%는 다른 문제를 놓고 뜻이 같다고 하더라도 반이민자 정서가 강한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트럼프가 반이민 정책 등으로 등을 돌린 히스패닉과 흑인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늘어나는 인구수 등을 고려할 때 공화당이 아시아계 표심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국으로 이민한 아시아계 숫자는 히스패닉을 넘어섰다. 2065년에 이르면 미국 내 아시아계 인구수가 히스패닉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WSJ는 아시아계 인구 증가에 주목하며 "아시아계는 점점 영향력이 커지는 집단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공화당은 아시아계 미국인 사회에서의 입지를 걱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65)

조진모 목사 (필라델피아한인연합교회)

1. 초대 교회 - 신앙의 자유와 경건 (6)

하나님은 세상의 일을 주관하신다. 강력한 능력과 지혜로 목적하신 일을 계획하시고 추진하신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그를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근거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완벽한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부족하고 불완전한 인간을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교회 역사의 큰 발자취를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을 받은 자들이다.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지속될 것이다. 그 중에는, 인간의 기준에서 보면 잘 준비되고 능력으로 채워진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쓰임을 받은 자들도 있다.

질문: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가?

1) 교회 역사를 보면...

■ 제롬, 성경 번역가

제롬(Jerome, 347-420)은 '라틴어 불가타(The Vulgata), 보통말 번역'으로 불리는 라틴어 성경번역으로 유명한 신학자이다. 제롬은 영어명이고, 라틴어로 된 공식 이름은 에우세비우스 소프로니우스 히에로니무스(Eusebius Sophronius Hieronymus)이다. 그가 성경을 번역하기 전에도 부분적인 고대 라틴어 번역본이 있었지만 교회가 공인하는 신구약 번역을 404년에 완수함으로써 향후 서방교회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제롬이 성경을 번역할 수 있었던 것은 교황 다마스 1세의 의지 때문이었다. 그는 교회를 대표하는 자리에서 사역하면서, 서방교회의 신학과 신앙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교회가 인정하는 성경본이 필요하다고 절감하게 되었다. 마침 자신을 보좌하는 비서로 일하고 있던 제롬의 언어적 우수성을 알고 있던 바, 황제가 제롬에

게 이 중대한 일을 요청한 것이다. 제롬은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직접 라틴어로 번역작업에 착수하였다. 한마디로 제롬은 언어능력이 유별나게 뛰어난 학자였다. 히브리어는 유대인 랍비에게, 헬라어는 라오디에아 주교에게 배웠는데, 이토록 훌륭한 업적을 이루었다는 것은 실로 놀

라운 일이다. 그러나 초기에는 제롬의 번역본이 교회에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당시 헬라어를 사용하는 동방교회의 영향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헬라어 구약 성경인 '칠십인역'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제롬의 번역본에는 고대 라틴어 번역본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

분명 서방교회 지역의 언어인 라틴어로 번역되었고 이해하기 쉬운 단어와 표현방법을 사용되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읽어오던 성경과 다르다는 이유와 새로운 것을 수용해야 하는 부담에서 오는 거부감 때문에 보급이 늦어졌었다. 결국 세월이 흐르면서 제롬의 번역본의 우수성이 인정받게 되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전까지 제롬의 번역본은 서방교회의 성경으로 자리매김을 했다.

■ 제롬, 수도사

제롬은 어려서부터 훌륭한 스승으로부터 라틴 고전문학과 수사학, 그리고 철학을 배웠다. 뛰어난 지적 능력을 연마한 그가 향후 서방교회의 대표적인 신학자로 등장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그의 신앙 여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물론 그가 경험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가운데 향후 서방교회의 신앙적 특징을 결정짓는데 사용되었다.

부모의 신앙과 상관없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제롬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을 체험했다. 그가 중병을 앓게 되었다. 힘없이

형제를 버리라는 말씀과 연관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모든 그의 경험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서 커다란 문제를 발견하였다. 아무리 금욕과 기도에 집중하여도 과거의 추잡했던 삶의 모습에 대한 기억이 쉽게 떠나지 않고, 세속적인 욕망이 계속하여 자신을 엄습하였기 때문이다. 수도사의 삶이 자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줄 것으로 기

대했던 제롬은 실망을 금하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수도사들 사이의 벌어졌던 신학적 논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었다. 당시 동방교회를 큰 혼동으로 몰아넣은 아리우스의 이단적인 신학사상에 대하여 수도사들이 침묵을 지킬 수 없던 상황이었음에도 제롬은 자신과 익숙하지 않았던 환경을 떠나기로 작정하였다.

■ 제롬, 수도원 운동가

제롬은 서방교회에 수도원운동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신앙적 교훈을 찾아 동방교회를 찾은 서방교회 교인들을 위해 헬라어로 기록된 파코미우스의 수도회칙을 라틴어로 번역하였다. 382년에 로마에 돌아갔을 때, 교황 다마스 1세의 비서로 활동하면서 서방 교회에 수도원운동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동방교회의 수도원을 친히 경험하면서 남다른 거룩에 대한 열망을 지니게 된 제롬의 눈에 비쳐진 로마사회의 모습은 실로 절망적이었다. 화려함과 사치를 즐기는 겉모습에 비하여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를 아파하였다. 제롬은 유세비우스가 저술한 '교회사'를 라

틴어로 번역하면서 초대교회가 걸은 역사와 진숙하여 있었다. 자유롭게 기독교 신앙을 누리기가 지 신앙을 지키며 삶과 생명을 희생한 성도들이 있었으며, 그 당시에도 순결한 신앙을 위하여 세상을 등진 수도사들의 실천적인 삶이 끊이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였다. 자연히 교황의 인정을 받으며 로마의 상류층과의 교제의 폭을 넓히면서, 서방 교회적인 수도원운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시작하였다. 일종의 수도원 운동가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제롬은 귀족들이 소유한 웅장한 저택을 수도원으로 전환하라고 설득하였다. 상류층 여성들과 오해를 받을 정도로 친숙하게 지내면서, 그들에게 성경의 진리와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라

계속 연구하였을 뿐 아니라 성경의 라틴어 번역을 완수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섭리가운데, 후대 교회에 커다란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신 것에 틀림이 없다.

역사가들은 제롬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의 개인적 인품에 커다란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서슴없이 지적한다. 그가 거룩을 향한 열망을 지닌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도가 지나쳐 주위 사람들로 부터 따돌림을 받은 것이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고 의롭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경죄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다. 단순히 진리를 향한 열정이 아닌, 그의 강한 성격으로 인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과 수시로 대립하였기에 많은 사람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은 이렇게 성격에 모든 것만 한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이다.

2) 성경이 보인다 - 예레미야 20:9; 로마서 8:28; 고린도전서 1:24; 디모데후서 2:20-26; 베드로전서 1:2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는 사람을 선택하는 권한이 그에게 있다. 우리는 인간은 눈에 보이고 느끼는 대로 판단하는 성향이 있다.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느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하려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전혀 다르다. 인간적인 능력을 잘 구비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결함이 많은 사람도 들어시킨요하게 사용하신다. 사실 완벽 한 마음을 찾으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하나님께서선 선택하신 자들을 도구의 자격을 갖추도록 섬리하신다. 부족과 약점을 은혜로 덮으시고 가리키면서 사용하신다. 중요한 것은 거룩을 향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다.

covenantcho@yahoo.com

'스펙' 위한 선교여행 너무하다!

(3면에서 계속)

하트포드에 있는 트리니티 칼리지의 입학처장 앙헬 페레즈는 이렇게 말했다.

"입학처 사람들은 자연히 수많은 지원서를 보게 되죠. 저허거리 하는 우스갯소리 중 하나가 '열대우림을 지키기 위해 코스타리카로 떠난 선

교여행'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길래 선교를 목적으로 와서 열대우림을 지키겠다는 건지, 너무 허황된 포장이라는 거죠."

케번 칼리지에서 오랫동안 입학사정관으로 일한 제니퍼 델라헌터도 자기소개서 중에 선교여행의 경험을 서술한 부분은 과장된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 부분이라 특히 꼼꼼히 읽게 된다고 말한다.

"대개 이런 에세이가 내리는 결론이 거의 비슷해요. 가난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때 묻지 않은 모습이 감명했다거나 그들의 삶이 오히려 더 행복하고 여유로워 보이더라는 식의 결론이죠. 실제로 어떤 학생들

에게는 그 경험이 분명 신선한 충격일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충격을 에세이에 고스란히 담아낼 필요는 없어요. 특히 다른 사람들이 흔히들 하는 말을 그냥 끌어다 놓고만 에세이는 학생 본인이 솔직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쓴 글이 아니라는 의심을 받게 되죠."

선교여행을 떠나거나 해외 봉사 활동을 하러가는 학생 중 진심으로 세상에 보탬이 되고자, 잠깐이나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활동에 참가해 정말로 값진 경험을 얻고 돌아가는 학생들도 많을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열 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델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주일예배: 오후 8:00 중장년예배: 오전 10시 (한) / 오전 11시 (영)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1부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예배: 오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nk Road, Charlotte, NC 28209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cseattle.org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702)749-9929,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vchurch.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시애틀: (501)425-5178 600 Kirby Blvd., Little Rock, AR 72211 www.jebs.com	앵커리지베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http://www.bethelchurch.org/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Tel: (915)755-1490, 시애틀: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헌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수요일 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kcc.org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cu.org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리더십 코멘터리 (24)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Rio 2016, 올림픽정신

전 세계인들의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이 시작되었다. 2016년 제31회 리우 하계올림픽은 8월 5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는데 총 206개국에서 1만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역사상 남미에서 열리는 첫 번째 올림픽이고, 브라질에서는 2014년 FIFA 월드컵에 이어서 2회 연속으로 열리는 대규모 스포츠 대회이다. 또한 브라질의 아름다운 항구도시인 리우데자네이루의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서 있는 예수님 동상 아래서 열려 주목을 받고 있다. 올림픽 기간 동안 지구촌 최고의 스타들이 한데 모여서 열전 17일간의 대하드라마를 완성하게 되는데, 그들이 써 내려가는 감동의 스토리에 전 세계인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고 올림픽 스토리의 감동은 예고다 없다.

올림픽 정신-비전은 강한 전염성이 있다

미국의 육상선수 찰리페덕은 100미터 달리기에서 10.8초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유명해진 그가 클리블랜드의 어느 하이스쿨에서 강연을 마치고 나오자 한 소년이 달려와서 "선생님, 제가 올림픽 100미터 달리기에서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꿈을 꾸다면 저도 선생님처럼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찰리페덕은 소년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격려했다. "물론이다. 애야, 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내게 와서 말할 만큼 용기가 있다면 너는 분명히 해내고 할 거야" 그 일이 있고 나서 세월이 흘러 그 소년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찰리페덕의 기록을 0.5초 단축하며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육상부문 4관왕이 되었는데 그가 바로 올림픽의 영웅 제시 오웬스이다.

오웬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자 어떤 소년이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다. "아저씨, 저도 아저씨가 이런 꿈을 해내고 싶어요. 제가 감히 그런 꿈을 꾸도 될까요?" 오웬스는 찰리페덕이 한 것처럼, "물론이다. 그렇게 해라. 그 꿈을 위해서 너에게 있는 모든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 붓는다면 너는 분명히 해낼 수 있단다" 격려를 받았던 그 소년은 1948년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해리슨 딜라드 선수이다. 꿈은 욕구에서 나오고, 비전은 가치에서 나온다. 그래서 꿈은 전염성이 없고, 비전은 강한 전염성이 있다. 꿈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없지만, 비전을 위해 죽은 사람들은 많다. 당신이 믿음 안에서 내일에 대한 용기와 열정과 비전을 갖는다면 미래는 당신에게 인생의 금메달을 선물할 것이다.

올림픽 정신-투혼과 여유 그리고 신앙심

로라 월킨슨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다이빙 10m 플랫폼 여자부에서 36년 만에 미국에 금메달

을 안겼다. 대부분의 사진기자들은 중국이 메달을 싸쓸이 할 것으로 예상하고 카메라 앵글을 중국선수에게 맞춰서 때문에 금메달리스트의 화려한 비행장면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월킨슨은 예선 5위에 이어서 준결승에서도 5위에 머물러서 메달 가능성이 거의 희박했고, 중국선수들은 준결승까지 9차례 다이빙을 모두 1, 2위를 마크해서 결승전 직전에 월킨슨과의 점수 차가 43점이 나 벌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각자 5번씩 다이빙을 하는 결승에서 월킨슨은 1, 2차에서 역시 5위를 차지해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그녀는 3차에서 난이도 2.7짜리 리버스 다이빙을 수면에 거의 물보라 없이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최고 점수를 기록한 후에 2차례를 더 1위에 오르면서 우승을 차지하고 마침내 세계 다이빙계를 경악시켰다. 월킨슨이 올림픽 다이빙 사상 가장 극적인 우승

멀고도 험한 믿음의 여정, 예수그리스도 바라며 인내 절제로 경주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함 갖고 승리의 상 얻기 위해 열심히 달려야

을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투혼과 여유, 그리고 신앙심 때문이었다. 16살 늦깎이로 다이빙에 입문한 '텍사스 처녀' 월킨슨은 연습 도중에 오른쪽 발이 세 군데나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지만 연습에 지장을 받을까봐 올림픽 직후로 수술을 미뤘다. 그녀의 트레이드마크는 도약직전에 미소를 머금은 채 마치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하듯이 관중석을 돌아보는 여유를 갖는 것이다.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과 눈을 맞출 때 불안감이 없어져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독실한 크리스천인 월킨슨은 다이빙을 할 때마다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빌 4:13)"는 말씀을 암송하며 자신감을 얻었다. 투혼과 여유 그리고 신앙심으로 무장한 월킨슨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결국 역사적인 금메달을 차지한 것이다.

올림픽 정신-진정한 사랑

빌 헤이븐스는 1924년 미국 최고의 조정경기 선수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의 금메달 기대주였다. 조정경기에서 빌 헤이븐스를 능가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미 세상에 알려진 사실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미국의 올림픽 선수팀이 출발하는 바로 그날 그의 아내가 출산하게 되었던 것이다. 빌 헤이븐스는 파리로 가야 할지, 아내 곁을 지켜야 할지 결정하기가 어려웠다. 아내와 담당의사는 염려하지 말고 다녀오라고 했지만 빌

헤이븐스는 평생의 꿈이었던 올림픽 금메달을 포기하고, 새 생명을 출산하기 위해서 수고할 아내 곁에 머물기로 결심했다. 빌 헤이븐스는 자기가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28년이 지난 1952년까지도 스스로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해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된 올림픽에 출전한 아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전보를 받고서야 그 답을 알 수 있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가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 옆에서 저를 기다려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버지가 28년 전에 받으셨을 금메달을 목에 걸고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프랭크로부터."

올림픽 정신-정직한 승리

후주 시드니올림픽을 앞두고 미국에서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렸다.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중요한 경기였는데 두 여자선수가 결승전에서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한 선수가 경기 시작과 동시에 기권을 하고 매트에서 내려왔고 뒤따라 내려온 다른 선수가 그녀를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다. 이날 경기를 포기한 선수는 한국계 미국인 에스터 김이었다. 그리고 뜻밖의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선수는 케이 포라는 선수였다. 케이 포는 준결승전에서 큰 부상을 당해서 결승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 상태에서 경기를 했더라면 에스터 김 선수가 올림픽 진출권을 획득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였다. 하지만 그녀 스스로 경기를 포기하고 경쟁자에게 올림픽 출전권을 양보한 것이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다. "케이 포는 나보다 실력이 한 수 위입니다. 올림픽 출전할 적임자에게 기회를 주었을 뿐입니다." 이날 두 사람은 모두 승자가 됐다. 수단과 방법

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상대방을 이겨야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의미 있는 참된 승리가 아니라면 용기 잃게 포기하는 참된 승리자가 되라. 편법이나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는 세상 가운데 정직한 승리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교훈해주는 올림픽 스토리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금메달리스트

우리가 달리는 인생길, 믿음의 여정은 멀고도 험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바라보며, 인내와 절제로써 올림픽 경주자의 자세를 갖추면 능히 믿음의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될 줄로 믿는다.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기초훈련을 하고 기술을 연마하며 맘을 열리는 선수들의 모습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안해하지 말고, 항상 평안함을 가지고 리더의 자리를 지키기 바란다.

성경은 신앙인들을 운동선수로 비유하며 이 세상의 올림픽선수들처럼 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라고 격려하고 있다. 양궁경기에서 마지막 순간의 승리를 위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야 하듯이 불안과 염려, 미움과 두려움 그리고 불확신 가운데서 살아가는 당신이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간직하며, 하나님이 인정하는 금메달리스트가 되기를 소원한다.

sondongwon@gmail.com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범사범대학교 교수)

존귀한 이름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은 토비다. 낳은지 세달 되었을 때 우리 집에 와서 삼년 넘게 같이 살다보니 애완동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던 나도 어느새 토비에게 정이 들었다. 얼마 전에 토비가 며칠 동안 계속 귀를 긁고 있었다. 어릴 때 귀에 물이 들어가서 병원에 갔던 적이 있는 후로는 목욕을 시킬 때 수의사가 알려준 대로 솜으로 귀를 막고 나름대로 조심을 했는데 또 물이 들어갔나 싶었다. 말을 못하는 강아지가 자꾸 귀를 긁어대니 마음이 쓰여서 병원에 데려가려고 전화했다. 동물병원 직원이 강아지 이름을 물어서 토비라고 하니가 성이 뭐냐고 물어서 "토비 변"이라고 말했다. 같은 이름을 가진 강아지들도 있을 테니 병원 파일에 동물들 기록이 주인의 성을 따라 보관이 되어 있나보다. 옆에 있던 언니가 깔깔대며 웃었다. "애, 강아지도 변이니?" 한국에서 다니러 왔던 언니에게는 동물에게 주인의 성을 붙이는 것이 우스웠던 모양이다. 평소엔 별 생각 없이 동물병원에서 이름을 물으면 "토비 변"이라고 대답을 했었는데 언니의 질문에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옛날부터 자식이 행동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 자식을 가문의 수치라고 말했다. 즉 그 집안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것이다. 아는 분이 강아지를 두 마리 키우고 있는데 강아지들이 극성을 떨어서 털 깎는 곳에 가서 털을 깎을 수가 없었다. 집으로 출장 나오는 사람이 강아지 털을 깎으러 왔는데 얼마나 강아지들이 난리를 했는지 그 사람이 털을 깎다 말고 돈을 안 내도 좋으니 자기는 그만 가겠다고 하고는 중간에 포기하고 갔다. 그 분이 얼마나 창피하든지 자기가 먼저 문제 있는 자녀를 둔 부모가 학교에 불려가서 선생님 앞에 선 것처럼 당황스러웠다. 강아지도 극성을 떨면 주인이 창피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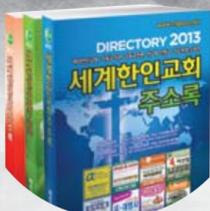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그리스도이라는 이름은 분명 좋은 의미였을 것이다. 주님을 만난 이후 달라진 사람들의 삶 때문에 그들을 본 주변의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 이름은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할 사람들임을 생각나게 한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어두움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입양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휘방 받지 않도록 경건한 삶을 살아 드려야 한다.

이제 세상 반이 된 토비는 훈련이 되어서 제법 말도 알아듣고 자기가 좋아하는 스낵을 먹을 때도 기다리라고 하면 참고 기다릴 줄도 안다. 우리가 집을 비워야 할 경우가 생겨서 아들 친구 집에 하루, 이틀 자고 오면 강아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 어머니도 토비가 착하다고 칭찬한다고 한다. 나도 자주 "우리 토비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강아지이지?" 그렇게 칭찬을 해주다. "변"씨 성을 붙여줘도 필만큼 착하다는 뜻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며 "그래, 내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붙여줘도 별로 부끄럽지 않은 크리스천이구나" 이렇게 우리를 향해 말씀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lpyun@apu.edu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한 눈에!

2017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는 2017년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자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록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화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6년 9월 30일 / 광고 접수마감 2016년 9월 30일**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Fax. (718) 886-0074
E-mail: ny@chpress.net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 (323) 665-0009, Fax. (323) 665-0046
Email: la@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유 료 광 고 안 내	돌출(표지)	3.5cm × 4.5cm	\$600.00	
	전면칼라	17cm × 24.5cm	표지내면(2면, 3면)	\$3,000.00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000.00
			Inside	\$1,0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 23.5cm	\$800.00		
(칼라) 전면 1/2	15.5cm × 5.8cm	\$600.00		
전면 1/4	15.5cm × 5.8cm	7.7cm × 11.7cm	\$350.00	
		7.7cm × 11.7cm		
		15.5 × 2.8cm	\$250.00	
전면 1/8	7.7cm × 5.8cm	\$250.00		
돌출 Listing	Listing size	\$100.00		

무 료 리 스 팅 신 청 서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_____ 영문 : _____
	② 교회(기관)주소	_____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_____ Fax.() _____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_____ 영문 : _____
	⑤ 사택주소	_____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_____ Fax.() _____
	⑦ E-mail Add.	_____
	⑧ Web Add.	_____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_____



목회서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 (1)



여승훈 목사

20세기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회자 가운데 한분이던 존 스토틀 목사가 쓴 'what Christ thinks of the Church(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라는 책을 통해서 큰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다.

필자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비전 대신에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에 대한 비전을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는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에 대한 비전을 만나게 되었다.

예배소 교회는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고 인내가 있었고 악을 용납지 않는 정열이 있었고 진리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었고 성실함이 있었던 교회로 참 관촬은 교회였던 것이다. 많은 현대 교회들이 몰 모델로 삼고 싶어 하는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데 예수님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목회자는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과 목회 경험을 토대로 그리고 장로님들은 교회를 섬겨오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토대로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필자도 마찬가지로 저의 목회 비전과 목회 철학과 목회 전략 등을 열심히 준비하였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라는 문구 앞에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건물은 설계 도면에 그려져 있는 대로 세워진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에 대한 어떤 설계 도면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지상의 모든 교회가 가져야할 공통된 설계 도면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 먼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 교회에 대한 설계다.

를 처음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매일 새벽기도를 다니던 그때를 처음 사랑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성경 말씀에 푹 빠져서 매일 말씀과 함께 살았던 그 시절을 처음 사랑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마시던 술을 끊고 피우던 담배를 끊은 변화가 일어났던 그때를 처음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모두다 처음 사랑의 범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처음 사랑은 보다 구체적이며 보다 본질적인 요소가 있다.

님께서 목숨을 버리신 십자가라는 것이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시작된 지점이다. 예수님께서 에베소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신 말씀의 의미는 에베소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식어졌다는 뜻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감격이 식어질 때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처음 사랑은 보다 구체적이며 보다 본질적인 요소가 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열린 바로 그 순간을 의미한다. 그때가 언제인가?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가 누구인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고 말한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린 장소가 어디인가? 십자가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여기서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지점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열린 그 지점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시작한 그 지점이 곧 예수

십자가에 대한 감격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교회 바로 이런 교회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식어질 때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걸치레에 지나지 않는 종교 활동으로 전락하게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식은 채 이루어지는 활동들과 행사들은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우리가 세우기 원하는 그런 교회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기독교 진리는 매우 단순하다. 그러나 그 진리는 지적인 동의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고백으로 이어져야 한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다는 이 단순한 한마디 고백에 우리의 눈시울이 적셔져야 하는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는 결코 어려운 학문이 아니다. 결코 어려운 전략이 아니다. 그것은 가슴의 고백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다. 이런 교회가 이곳저곳에 세워지기를 갈망해본다.



글로벌 선진학교 소개와 장학정보 박람회 가 말씀새로운교회에서 열렸다

글로벌선진학교 소개 및 장학정보박람회 "신앙적 학교로 청소년 교육 책임진다"

지난 20일 오후 1시 말씀새로운교회(담임 김희창 목사)에서 글로벌선진학교 음성캠퍼스 교감 우현석 목사가 글로벌선진학교 소개의 시간을 가졌다.

다.

또한 트리니티대학교 총장인 김희창 박사는 우수한 치과대학을 공부한 자녀를 통해 개발한 미주 한인단체 장학금 정보와 신청 노하우를 200여점의 자료들과 함께 공개 세미나를 인도했다. 김 박사는 "지금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때이고 기관이나 교회들이 장학금을 받게 하는데 인증되는 봉사과 리더십 증거 자료들을 만들어줘야 하며 자녀들을 우수한 인력으로 키우는데 장학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것은 이메일(hoichangkim@hanmail.net)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말씀새로운교회)



이스트 와이즈맨 클럽 창립 13주년 및 장학금 전달식이 한빛교회에서 열렸다

이스트 벨리 와이즈맨 클럽 창립13주년 최우수 와이즈맨 상 수상식, 장학금 전달식 가져

Y's Men 인터내셔널 이스트 벨리 와이즈맨 클럽(회장 자니운) 13주년 기념식과 장학금 전달식이 20일 오후 3시 한빛성결교회(담임 차광일 목사)에서 열렸다.

단체이며, YMCA를 공동으로 성심껏 도우며,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도력을 개발, 육성, 제공함으로써 모든 인류를 위한 보다 나은 세계를 건설하는데 힘을 다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와이즈맨은 YMCA에서 후원하는 봉사기관이며 한인들 대상의 모임은 지난 2003년 3월 21일 '이스트 벨리 와이즈맨 클럽'이란 이름으로 설립됐다.

에릭 김(PIP)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자니운 회장의 인사말, 국기에 대한 경례, 목적낭독, 데이빗 목사(한빛교회)의 기도, 엘든토프(PRD)의 축사 등으로 이어졌으며 최우수 와이즈맨 상 수상, 장학금 증정식 등으로 이어졌다.

와이즈맨 클럽 국제연맹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신앙인들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므로서 함께 일하는 범세계적인 우호

(박준호 기자)

<4면에서 계속>

이제 자신을 좀 더그렇게 대하라. 좀 부족해도, 넘어졌어도 자신을 향하여 "그럴 수도 있지. 일어나면 돼, 돌아서면 돼" 하고 넉넉하게 자신을 대하라.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신 것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일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하고 용서하지 않고 맺힌 것을 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다.

어떤 왕에게 일단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다. 도저히 그 큰 빚을 갚을 수 없는데 그 왕이 그를 관대하게 대해서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조금 빚진 사람, 겨우 백 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금을 베풀지 않고 그를 옥에 가두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그 사람을 다시 불러 옥에 가두고 다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게 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하셨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마18:24-35)고 하셨다. 이는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지 못한다는 말씀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마음껏 누릴 수가 없다.

하나님의 관대하심 때문에 우리

는 일단 달란트 빚을 탕감 받았다. 이제 우리 차례다. 우리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줄 차례다. 마음을 넓혀라. 넓은 가슴을 가져라. 좀 더 큰 자로 살라. 관대한 마음으로 살라.

노아 벤자는 "다른 사람에게 항구를 제공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안식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제공해주면 내가 안식을 누린다는 말이다. 우리가 관대해질수록 안식을 누리고 삶이 수월해지고 편안해진다. 우리가 관대해질수록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더욱 체험하게 된다. 우리가 관대해질수록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된다. 우리가 관대해질수록 감사의 노래가 끊어지지 않게 된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와 관대하심을 말하다 보니 너무 가슴이 벅차서 여호와와 지으신 모든 만물을 향하여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했다. 또 한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외쳤다.

"여호와와 지으신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22절).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받고 있음을 알면 알수록 송축하며 살게 된다. 하나님의 관대하심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강사: 라흥재 목사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동부교계 기사판



퀸즈장로교회 한국학교 개강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한국학교가 9월 17일부터 12월 1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열린다. 대상은 프리킨더부터 12학년까지이며 등록마감은 9월 3일까지. 예능교실에는 발레, 미술, 피아노, 기타, 바이올린 등이 있다.

▲문의: (718)866-4646, (917)340-3967/김홍덕 권사

뉴욕리폼드신학교 가을학기 학생 모집

뉴욕리폼드신학교(NYRBS, 학장 유상열 목사)가 2016년도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대학부: 신학과(고졸 4년) △대학원: 목회학(대졸, 3년), 선교학(대졸, 2년), 교육학(대졸 2년), 상담학(대졸 2년), 음악학(대졸 2년)이며 서류는 입학원서, 학력증명서, 소명서, 이력서, 추천서가 필요하다. 원서접수 마감은 8월 31일(수), 9월 4일(주) 개강예배를 드리고 5일(월)부터 개강한다. 동 신학교는 20014년 1월 18일 뉴욕주 교육부에서 허가를 받아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신학교육기관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신측) 미주동부노회가 운영하는 사역자 양성기관이다. 웹사이트 rbsny.org

▲문의: (917)862-0523, (718)961-2171

부목사 청빙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소속인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가 부목사 1명을 청빙한다. 자격은 교단에서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개혁주의(칼빈주의) 신학과 신앙을 따르며 교회 행사, 행정 및 교육 등에 경험이 있어야 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가족사진 포함), 자기 소개서(사역계획 포함), 목사안수 증명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최근설교 1편(CD 또는 DVD), 추천서 1통이다. 제출마감은 10월 31일(월). 이메일(kwanhochung@hotmail.com)이나 우편(26-06 163 St. Flushing, NY 11358)으로 보내면 된다.

▲문의: (917)750-8174

PGM 정책 이사회

PGM(세계전문인선교회, 회장 호성기 목사) 정책 이사회가 9월 22일(목) 오전 11시 필라 안디옥교회에서 열린다. PGM은 매월 중보기도회를 매일 넷째 주 월요일 오후 8시에 필라 안디옥교회 소예배실에서 갖는다. 9월은 26일. 한편 PGM 비전스쿨이 9월 8일부터 매주 목요일 필라 안디옥교회(담임 호성기 목사)에서, 9월 27일부터 매주 화요일 그리스보로제일장로교회(담임 김기서 목사)에서 시작된다.

▲문의: admin@pgmusa.org

뉴저지 한소망교회 설립 31주년 기념 부흥회

뉴저지 한소망교회(담임 김귀환 목사)가 9월 9일(금)부터 11일(주)까지 교회설립 31주년을 기념하는 부흥성회를 갖는다. 강사는 송병기 목사(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

▲문의: (201)801-9100



노스캐롤라이나교협 연합수련회를 준비한 임원부부들이 기념촬영 했다.

노스캐롤라이나교협 연합수련회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협의회가 매년 갖는 연합수련회가 지난 8일부터 사흘간 마들 비치에서 열렸다. 일년에 한번 갖는 수련회에서 만난 회원들은 반갑게 교제하며 목회 경험의 나누고 선배들의 조언을 소중히 나눔 받는 좋은 기회였

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 첫날 말씀을 전한 나성근 목사(살롯장로교회 담임)는 부인 초기에 있었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성으로 극복했음을 간증했다.

(기사제공: 살롯장로교회)

영과 육, 회복과 재충전의 시간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노회 목회자 수련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노회(노회장 황경일 목사) 목회자 수련회가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뉴욕중

업스테이트 아널스헤븐에서 열렸다. 노회원 부부 11가정이 참석한 이

번 수련회에서는 낮에는 세미나와 저녁시간에는 예배로 영과 육신을 회복하며 재충전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첫날 저녁예배는 허윤준 목사 인도로 기도 김성국 목사, 설교 황경일 목사("고난과 믿음", 행16:24-25), 광고 이규본 목사, 축도 장영준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둘째날 세미나는 장영준 목사("목회성공의 비결")와 허윤준 목사("기도 묵회"), 임영건 목사("목회의 은총")가 맡았으며 장미는 사모가 사모들을 대상으로 "사모의 영성관리"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인도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노회 목회자 수련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회원들과 콜롬비아 후원아동들이 기념촬영 했다.

"떡과 복음" 전하는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2016 콜롬비아 단기선교 마치고 귀환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전희수 목사) 연례사업단 단기선교가 지난해 페루에 이어 8월 15일부터 20일까지 콜롬비아에서 진행됐다. 7명의 선교팀은 현지 김혜정 선교사의 도움아래 맬갈, 아구아피다, 치아 지역을 방문해 △사랑의 집짓기 현판식 △모기장과 물탱크 전달 △티셔츠와 선물 전달 △결혼아동 방문 △지역아동들과 소금성당 견학여행 △현지인 결혼식 참석 등의 사역을 펼쳤다.

떡과 복음으로 굶주린 지구촌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미동부국제기아대책 회장 전희수 목사는 선교를 마친 후 "2016년 콜롬비아단기선교에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물질로 후원해주신 이사장 김승희 목사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우리 가족을 위한 희망이 보여요'

패밀리터치, 연방정부 후원 가족 캠프 개최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가 주최한 즐거운 가족 캠프 '우리 가족을 위한 희망이 보여요!'가 지난 20일과 21일 HNA 팰리세이드 컨퍼런스 센터에서 진행됐다.

총 13가정(부모 26명, 자녀 27명)이 참여한 이번 캠프는 미연방정부가 후원하는 홈 스위트 홈(Home Sweet Home) 프로젝트의 하나로 참여하는 가족을 위한 숙박을 포함한 모든 활동이 전액 무료로 진행됐다.

이 캠프에서는 관계기술, 토의기술, 문제해결 기술 등 7가지 주요 대화기술을 배우고 부부데이트, 나

눔의 시간을 통해 부부간 자녀간 함께 나누고 대화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은 수영과 사신을 표현하는 미술 활동, 친구들과 협동하는 액티비티를 통해 협동하는 기술을 배웠다.

캠프에 참여한 가족들은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을 배우는 것이 부부와 자녀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가족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며 가족 간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사제공: 패밀리터치)

저녁예배는 이종원 목사 인도로 기도 정기태 목사, 설교 이규본 목사("다시 보게 되는 은총", 행9:10-19), 축도 이규본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예배 후에는 정기태 목사 사회로 성경퀴즈와 게임 등을 하며 친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2회에 걸친 새벽기도회는 23일 정기태 목사 인도로 말씀 이종원 목사("바울을 본받읍시다", 행 20:17-27), 24일 임병순 목사 인도로 말씀 이윤서 목사("진정한 감성", 요4:13-14)가 각각 말씀을 전했다.

폐회예배는 김성국 목사가 설교("한가지", 시 27:4)했다. 뉴욕노회는 매년 여름 노회원 부부가 참석하는 목회자 수련회를 갖고 있다.

(유원정 기자)



뉴욕장로연합회가 지난 18일 조찬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장로연합회 제 42차 조찬기도회

뉴욕지구장로연합회(회장 손성대 장로) 제 42차 조찬기도회가 지난 18일 오전 8시 하크네시야교회(담임 전광성 목사)에서 열렸다.

예배는 박용기 장로의 인도로 기도 도 서홍석 장로, 말씀은 전광성 목사가 사사기 17장 1-5절을 본문으로 "참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서 특별기도 시간에는 정덕상 장로가 "다민족 선교대의 성공을 위하여", 송정훈 장로가 "조국과 미국을 위하여", 박용기 장로가 "본 교회(하크네시야교회)를 축복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각각 뜨겁게 기도했다. 헌금시간에는 정인국 장로의 바이올린 연주가 있었고, 헌금기도는 남후남 장로가 맡았다.

이어서 다민족선교대회 준비위원장 황규복 장로가 진행사항을 보고했으며, 전광성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회장 손성대 장로는 인사말을 통해 "이제 다민족선교대회가 10일 밖에 남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뉴욕장로연합회에 맡겨주신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위해 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동안 기도해준 후원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날 선교대회 현안들을 논의했으며, 신입 회원들을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고 8월 생일 회원들을 위한 케이크 커팅도 있었다.

한편, 장로연합회는 25일 오전 10시 노던 블러바드 204가 맥도널드에서 모여 준비된 전도지도 다민족에게 노방 전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뉴욕장로연합회가 주최하는 다민족 선교대회는 28일(주) 오후 5시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린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패밀리터치가 주최한 가족 캠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

뉴욕부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오후 2:00 영양예배: 오후 8:45 수요일예배: 오후 8:45 새벽기도: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성경공부: 화, 토 오전 10:00 Tel: (718)265-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WWW, FKCB.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917)733-7387 45-16 162 St., #20A, Flushing, NY 11358 chungkita@yaho.com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34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672-1470 45-50 162 St., #2F, Flushing, NY 11358 www.nygetsemane.org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시)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18)461-7835, CP: (718)938-1777 45-8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itoch.com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최요성경공부: 오전 10: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 Tel: (347)502-2571, Fax: (347)502-2570 210-10 Horace Harding Exp., Bayside NY 11364 http://nyccchurch.org
뉴저지침성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 3주)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0:50 왕인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학교: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에벤에셀선교회 담임목사: 최창섭 주일예배: 오전 10:45 주일2부예배: 오전 1:0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금요기도회: 오후 8:30 주일학교: 오후 9:00 Tel: (718)961-5858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http://emcny.us/	예사랑교회 담임목사: 손한권 주일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347)753-4551 41-05 45 St., Sunnyside NY 11104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o.org	퀸즈안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NCF영어: 오후 1:30 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ny.org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원을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입니다...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 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저녁 7:00 수요일기도회: 저녁 9:00 7/14호부기도회: 아침 7:40 월, 목, 금,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후 5: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Tel: (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선교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 2, 3, 부스페나인 설교) Tel: (595)211-574-985 E-mail: hanjkn@hanmail.net Cervantes NC, 1001, Asuncion-PARAGUAY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www.hwalichurch.org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이 땅을 고치소서... 2016 다민족연합기도회

10월 23일 애나하임 컨벤션센터...6천명 참석 예상

2016 다민족 연합기도회가 오는 10월 23일(주) 오후 5시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다. '이 땅을 고치소서(Heal Our Land)'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다민족 기도회는 지난 2011년 로즈볼 다민족 기도회, 2014년 버라이즌 야외극장 다민족 기도회에 이어 미국의 회계를 촉구한다고 주최측은 밝혔다. 18일 오전 10시30분 은혜한인교

회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미주한인 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을 지낸 한기홍 목사, 송정명 목사, JAMA 대표 강순영 목사를 비롯해 OC기독교교회협의회, 남가주중부교회협의회, 남가주한인목사회, OC기독교평신도연합회, OC한인여성목사회 등 교계 단체의 대표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한 청년 단체인 순무브먼트의

조성주 간사, 파이어 크루세이드의 정기정 목사, HYM의 더글라스 김선교사, 미스바철야기도회의 박형준 목사 등도 참석했다. 또 지난해 한인교계가 처음으로 주최했던 다민족 기도회에 동참했던 흑인, 라티노, 중동계 목회자와 언론 관계자들도 설명회에 참석해

비상한 관심을 드러냈다. 지난해 이 기도회에 3,5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강순영 목사는 "올해 행사에는 6천 명이 참석하길 기도하고 있으며 특히 다민족들과 함께 우리 한인 2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최 측은 기도회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한인교회는 물론 다민족들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제5회 LA기운실 사회봉사상' 공모

LA 기독교윤리실천운동(LA기운실)에서 '제5회 LA기운실 사회봉사상'을 공모 시상한다. 이 상은 지역 사회를 위해 일하며 사회봉사를 실천하는 교회, 단체, 개인을 알리고 표창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섬김의 삶을 사신들을 격려하고 한인교회와 사회에 좋은 모범 사례를 알려, 사회봉사의 실천이 더욱 확산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사회봉사를 실천하는 일에 열심 있는 교회, 단체, 개인이며 홈페이지(www.lacem.org)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email4lacem@g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마감은 8월 31일. 수상자는 9월 15일에 발표된다. ▲문의: (213)387-1207

비전케어 제2회 학생 아트 컨테스트 시상식

국제의료구호단체 비전케어 미주서부(이사장 이창엽)가 주최하는 '제2회 비전케어 학생 아트 컨테스트' 시상식이 27일(토) 오후 3시 오픈뱅크 웨스턴 지점(550 S. Western Ave)에서 진행된다. 전시회는 같은 장소에서 2주일간 전시될 예정이다. ▲문의: (213)281-2617

제 16회 창작성가의 밤

남가주한인기독교음악협회(회장 김원재)가 주최하는 제 16회 창작성가의 밤이 27일(토) 오후 7시 나성서부장교회(담임 서건오 목사 1218 S Fairfax Ave)에서 열린다. 이번 창작성가의 밤은 남가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12명의 작곡가와 13명의 시인, 그리고 7개의 기독교합창단이 함께 참여해 15곡의 새로운 성가를 발표한다. ▲문의: hchon@ucla.edu

더텐트 파킹랏콘서트 8월 공연 취소

더텐트 파킹랏콘서트가 마련한 8월 이벤트 '더 클래식-박인수와 친구들' 공연은 박인수 교수의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인해 취소됐다. 더텐트 관계자는 "박인수 교수가 제자들과 함께 콘서트 준비를 열의를 다해 해왔었다"며 "무대에 오르지 못할 정도로 심한 몸살에 걸렸었다"고 전해왔다. ▲문의: (213)999-4909

담임목사 청빙

브라질 상파울루 소재 동양선교회회가 목회와 소명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정규신학대학 이상 졸업자로 7년 이상 경력과 갖춰진 신학교 졸업과 사명을 가진, 복음적인 교회가 분명한 자면 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목사안수 증명서, 졸업증명서, 종중학위 증명서, 목회 비전서, 자기소개서 및 6개월 이내 설교 동영상과 추천서 2부 등을 준비해 andrejhong@hotmail.com으로 보내면 된다. ▲문의: 55-11-99126-8574

정대철 장로 신앙 간증 및 통일에 관한 세미나

정대철 장로(전 민주당대표 국회의원)의 신앙 간증과 한반도 정세분석 및 통일에 관한 세미나가 북가주교회의 초청으로 열린다. 신앙간증 및 세미나 일정은 △8월 31일(수) 오전 11시 임마누엘 장로교회(담임 손원배 목사) △9월 3일(토) 오전 7시 새누리선교회(담임 권영국 목사) △9월 4일(주) 오후 5시 웰크리크.GIM교회(담임 정윤명 목사). ▲문의: (408)263-5100, (650)504-6512, (925)639-9527

남가주꿈나무한국학교 학생모집

남가주든든한교회(담임 김현인 목사) 부설 남가주꿈나무한국학교가 2016년 가을학기 학생을 모집한다. '알찬수업, 든든한 뿌리교육, 꿈을 키워주는 학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가을학기를 시작하는 꿈나무 한국학교는 한국어는 물론 전통놀이, 미술, 구연동아, 스페인어를 특별활동으로 진행한다. ▲문의: (213)481-2779/393-8814

나성제일교회 부흥집회

나성제일교회(담임 김문수 목사)는 알타이 선교회 미국대표로 섬기고 있는 심호섭 목사를 초청, 9일(금)부터 11일(주)까지 위로와 치유의 부흥 집회를 갖는다. 집회 시간은 금요일 오후 7시30분, 토요일 오전 6시, 오후 7시30분, 주일은 오전 8시와 11시. ▲문의: (213)388-7101



2016 다민족 연합기도대회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주님세운교회에서 열린 입당 7주년 기념 음악예배에서 본교회 할렐루야 성가대가 합창하고 있다

주님세운교회 입당7주년 기념음악예배

모차르트 대관식 미사곡 연주

주님세운교회(담임 박성규 목사) 입당 7주년 기념 음악예배가 19일 오후 7시30분에 열렸다. 이번 음악예배는 모차르트 대관식 미사를 본 교회 할렐루야 성가대(이휘 서병호 장로)가 연주했다. 연주회는 서은재 집사가 '여호와를 찬양하라'를 불렀으며, 이희승 집사가 'Liszt: rigoletto'를 연주했으며 찬양대가 합창을 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께

영광 △사도신경 △기록하시다 △복 있도다 △하나님의 어린양 등으로 구성된 대관식 미사곡을 웅장하고 아름다운 화음으로 이날 모인 관객들에게 선사했다. 한편 연주회 전에 시작된 1부 예배는 남상길 장로가 기도했으며 박성규 목사가 '찬송의 능력'(행 16:25-26)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준호 기자)



하나로커뮤니티교회에서 열린 2016년 부흥성회에서 강사로 나선 김학진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로커뮤니티교회 김학진 목사초청 부흥성회

하나로커뮤니티교회(담임 이승준 목사)는 인도네시아 선교사 김학진 목사(자카르타한인연합교회 담임) 초청, 2016년 부흥성회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는 주제로 19일부터 21일까지 개최했다. 셋째날인 주일 오전예배 설교자로 나선 김학진 목사는 '거룩한 패밀리를 위한 미션'(창6:5-10)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노아시대 죄가 이 땅에 가득 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셔야 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동행했던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배부셨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시대의 구원의 방주를 지을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그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의 은혜를 주셨듯이 오늘날 교회와 가정을 통해 은혜를 내려주신다"며 "교회는 확대된 가정이며 가정은 미처낼한 비전과 신앙으로 하나 될 때 다음세대를 통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모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녀들이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학진 목사는 첫날 '놀림에서 누림으로'(렘4:6-7), 둘째날 새벽집회는 '십자가를 위한 헌신과 축복'(막15:21-23), 저녁집회는 '위대한 신앙의 자화상'(수14:6-15)'라는 제목으로 각각 설교했다. (박준호 기자)



소프라노 신선미 독창회가 벨리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다

소프라노 신선미 독창회

소프라노 신선미(LA Music Sacra choir 보컬코치/애브리데이 교회 솔로리스트) 독창회가 20일 오후 7시30분 벨리연합감리교회(담임 류재덕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독창회는 소프라노 신선미 씨가 피아니스트 이하늘 씨(LA Music Sacra choir 반주자/남가주 장로성가단 반주자/테너 박인수

교수 소리연구회 반주자)의 반주에 맞춰 모차르트의 'Laudamus te', 드비쉬의 'Clair de lune', 'Beay Soir', 스트라우스의 'Die Nacht', 'Amor' 등을 불렀으며 첼리스트 이미경 씨와 함께 라흐마니노프의 'Bocalise' 등을 불렀다. (박준호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h3>감사한인교회</h3> <p>담임목사 : 김영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연합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양예배: 오전 9:30, 11:30</p> <p>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h3>나성순복음교회</h3> <p>담임목사 : 진유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연합예배: 오후 2:0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lalgcusa@yahoo.com / www.lalg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h3>나성영락교회</h3> <p>담임목사 : 김경진</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주일 6부예배: 오후 2:30(청년)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시(토)</p> <p>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p>	<h3>나성제일교회</h3> <p>담임목사 : 김문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오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 주일예배: 오전 6:00(토)</p> <p>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h3>나침반교회</h3> <p>담임목사 : 민경엽</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30 EM, 대학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p>		
<h3>남가주든든한교회</h3> <p>담임목사 : 김현인</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드림)예배: 오후 12:30 EM 청년예배: 오전 10:30 주 일 학교: 오전 10: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40(월-토)</p> <p>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rscsa</p>	<h3>남가주사랑의교회</h3> <p>담임목사 : 노창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4부예배: 오후 1:20 영양예배(영성+KOC, 평일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h3>대흥장로교회</h3> <p>담임목사 : 권영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 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 예배: 저녁 7:30</p> <p>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pc.org</p>	<h3>등문교회</h3> <p>담임목사 : 김광삼</p> <p>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6:30(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p> <p>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www.egkpc.org</p>	<h3>디아스포라선교회</h3>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p> <p>대표: 전영자 목사</p> <p>"세계속에 흠여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p> <p>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p> <p>Tel: (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p>	<h3>미주양곡교회</h3> <p>담임목사 : 지용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오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 기도회: 오전 5:30(대일)</p> <p>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h3>미주평안교회</h3> <p>담임목사 : 임승진</p> <p>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p> <p>www.mpci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h3>빛과 소금의 교회</h3> <p>담임목사 : 이정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5:45(월-토) 오전 6:00(토)</p> <p>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p>	<h3>베델한인교회</h3> <p>담임목사 : 김한효</p> <p>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1:00(100명정원)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 대학원예배: 오후 1:00 영양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p> <p>Tel: (949)854-4010 / E-mail: bethe@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p>	<h3>복음장로교회</h3> <p>담임목사 : 김성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562)62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h3>세계소망교회</h3> <p>담임목사 : 오세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213)745-9191(CH), 사택: (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h3>요셉선교회</h3> <p>담임목사 : 정상호</p> <p>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7:30 금요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p> <p>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927 S. Bonnie Brae St., L.A., CA 90006</p>	<h3>엘버린침례교회</h3> <p>담임목사 : 박경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00</p> <p>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p>	<h3>월서크리스천교회</h3> <p>담임목사 : 엄규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민족)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토요일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오찬예배: 오후 6:00</p> <p>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011 L.A., CA 90010</p>
<h3>은혜한인교회</h3> <p>담임목사 : 한기홍</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영양예배: 오전 9:30, 11:30</p> <p>www.gracemc.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33</p>	<h3>주님세운교회</h3> <p>담임목사 : 박성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대령예배: 오후 7:20(토)</p> <p>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hurch.com</p>	<h3>주님의영광교회</h3> <p>담임목사 : 신승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요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p> <p>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scic.org</p>	<h3>좋은마을교회</h3> <p>담임목사 : 신현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p> <p>www.socialsamsungchurch.org Tel: (714)646-9259 Fax: (714)646-9264 16800 Immmertel Hwy, Yorba Linda CA 92886</p>	<h3>코너스톤 교회</h3> <p>담임목사 : 이종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화-토)</p> <p>www.cornestonctv.com / e-mail: pastor@lacomeston.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4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h3>토렌스조은교회</h3> <p>담임목사 : 김바울</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한)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청년) 장애우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p> <p>www.torrencecg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h3>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3>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96-4400 Fax: (718)89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목회와 일’ 건강한 동반 어떻게...

‘앞으로는 이중직 목회가 변칙이 아닌 기회로 여겨질 것이다. 이중직 목회는 중요한 선교 전략이 될 것이다.’ 미국의 크리스천 잡지인 크리스체너티투데이가 지난 2월 초 다룬 기사 일부다. 미래교회와 관련한 향후 트렌드를 전망하면서 ‘협업 목회’에 이은 두 번째 트렌드로 ‘이중직 목회’를 꼽았다. 기사는 ‘이중직 목회자를 더 이상 폄하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웅으로 높여줘야 한다’고 결론 맺었다.

◇‘목회자이중직, 교단별 중지 모을 때’=이중직 목회 문제는 한국교회가 당면한 위기와 직결된다. 신학교 난립과 예비 목회자 과잉 배출, 성도 수와 헌금의 감소, 교회 재정 악화와 미자립교회 양

한국교회에 참고가 될 수 있다. 전병철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대 교수는 “미국에서 이중직 목회는 생계형뿐만 아니라 자비량 사역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다”면서 “상당수 교단들이 이중직을 허용하고

은 1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이 밖에 미국 북미장로교(PCUSA)는 교단 산하 신학교들을 대상으로 이중직 목회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 시카고 소재 맥코믹

으로 도입하려면 목회자의 윤리적 타락을 예방하고, 목회자로서의 탁월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감독방안도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학교의 커리큘럼에 이중직을 수행할 수 있는 직업교육이 포함돼야 한다”면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총회와 노회, 신학교 및 지교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경동 감리교신학대 교수도 “이중직을 염두에 둔다면 신학생 때부터 ‘일인일기(一人一技)’의 관점에서 전문성을 준비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제안했다.

“이중직, 변칙 아닌 새로운 기회”...목회 패러다임 바뀔 때

산, 교회 폐쇄와 무임(無任) 목사 증가 등...

이 같은 구조가 고착화되는 현실 속에서 이중직 문제가 떠오르는 건 자연스럽다. 어떻게 해서든 목회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도 읽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목회자들이 소속된 교단들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쉬쉬’하며 넘어가는 건 불법목회자만 양산하는 꼴이 될 수 있다. 현장 목회자들은 “이중직에 대해 중지를 모으고 대책을 마련하려는 활발한 논의가 필요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 상황에서는 북미 지역 교회들의 이중직 목회에 대한 시각이

있고, 이를 돕고 지원하는 제도가 구비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남침례교(SBC)는 이중직 목회를 교회개혁의 중요한 모델로 인정하고 있다. 매년 이중직 콘퍼런스를 비롯해 이중직 목회자를 위한 교제와 격려, 훈련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남침례교 소속 신학대는 ‘이중직 인증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복음주의연합교회(ECC)의 경우, ‘이중직 목사 자격증(bivocational ministry license)’을 발급한다. 교단 차원에서 세속직업을 가진 목회자들에게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자격증

신학대의 경우, 학생들에게 신학 석사와 사회사업사 학위를 모두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복음주의루터교 역시 2000년 이후 이중직 목회를 사실상 허용하면서 이중직 목회자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용 중이다.

◇‘목회 패러다임 바꾸고 전문 커리큘럼 도입해야’=지난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의 ‘목사이중직 연구위원회’ 연구위원으로 참여한 임성빈 장로회신학대 교수는 “이중직 목회가 긍정적인 방향

목회 패러다임의 변화도 필수적이다.

조성돈 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는 ‘목회’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시작할 때 장소를 먼저 구하고 교회 공간부터 내건다”면서 “건물 교회에서 탈피해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목회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선일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 교수는 “부도덕하거나 범죄가 아닌 한, 일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청지기직 사명, 즉 이웃을 섬기고 피조세계를 잘 다스리는 사역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목회자 이중직 허용” 현장 목소리 갈수록 높아

교단차원에서 70%가 꺼려...기침, 기감, 기하성은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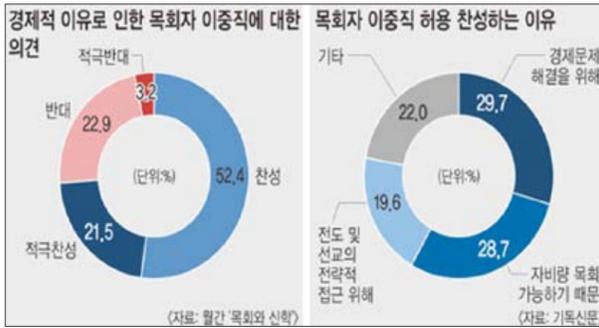
‘목회자 이중직을 허용해야 한다’는 현장 목회자들의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중직에 대해 여전히 ‘불허’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당수 교단들도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지난해 기독교신문이 국내 최대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소속 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57.2%가 이중직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대는 38.8%였다. 앞서 2014년 목회사회학연구소가 초교과 목회자 90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응답자 중 73.9%가 ‘경제적 이유로 인한 목회자 이중직’에 대해 찬성했다. 지난해 말 국민일보가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와 공동

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55%는 ‘이중직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목회자들이 소속된 주요 교단들의 입장은 어떨까. 국민일보가 장로교·감리교·성결교 등 국내 11개 주요 교단들의 목회자 이중직 허용 여부를 파악한 결과, 이중직을 허용하고 있는 교단은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와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등 3곳으로 조사됐다(표 참조).

기감의 경우 지난 1월 열린 임법 임시총회에서 예산이 3500만원인 하인 미자립교회의 목회자가 해당적 이유로 인한 목회자 이중직’에 대해 찬성했다. 지난해 말 국민일보가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와 공동



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70%가 넘는 교단이 여전히 목회자 이중직의 허용을 꺼리고 있다.

이에 대해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김진호 총무는 “이중직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목회 이외의 일에 뛰어들면서 목회에 대한 목회자들의 헌신도와 전문성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차질 성도

들과 교회 전반에 대한 관심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는 “목회자가 목회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면서 “생계 극복 차원을 넘어 선교적 차원에서 이중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교계에도 이중직 허용이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예장통합 교인 수 2만여명 줄어

작년 총 278만9102명 집계 2014년보다 0.77% 감소

우리나라 양대 장로교단 중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의 전체 교인 수(등록교인 기준)가 전년보다 2만1472명(0.7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개신교단 전체의 교인 수도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22일 예장통합 통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체 교인 수는 278만9102명으로 집계됐다. 교인 수는 2006년 264만8852명에서 2009년 280만2576명으로 점진적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1년 285만2125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13년 280만8912명으로 감소한

뒤 2014년 281만 574명으로 소폭 회복했으나 지난해 말 다시 감소했다. 최고치를 기록한 2011년에 비하면 6만3023명(2.26%) 줄어든 것이다.

전체 교인 수는 줄어든 반면 전체 교회 수는 8843개로 전년보다 112개(1.28%) 증가했다. 목사 수도 전년도에 비해 591명(3.26%) 증가한 1만8712명으로 집계됐다. 교역자들이 임지를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셈이다. 예장통합은 이 같은 통계를 다음 달 26일 열리는 정기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ACTS 신학저널, 선정돼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ACTS) 신학연구소(소장 한상화)가 발행하는 ‘ACTS 신학저널’이 2016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후보 학술지로 선정됐다. 등재후보 학술지는 등재지와 함께 전문 학술지로 시 권위를 인정받는다.

한국연구재단은 국내에서 출간되는 학술지들을 평가해 매년 등재지로 선정하고 있다. 등재후보 학술지는 선정 후 2년째부터 계속평가를 받아 일정 수준의 점수를 충족하면 등재지가 된다.

‘ACTS 신학저널’은 1984년 영문 저널로 시작해 2014년부터 1년에 4차례씩 학술지를 펴내고 있다. 1회

는 영문으로, 3회는 국문으로 발간하고 있다. 신학연구소는 ACTS의 신학 노선인 복음주의와 신본주의, 선교적 사명감 등을 고취하기 위해 연구에 힘써왔다.

최근 발행된 ‘ACTS 신학저널’ 28호에는 ‘ACTS 신학 공관(共觀)에서 본 손양원 목사의 신앙과 신학연구’(신종철) ‘구원하는 믿음의 성격에 기초한 기독교교육의 근본 원리 및 과제’(이숙경) ‘무슬림을 향한 선교적 자세’(최하영) 등 7편의 논문이 실렸다.

신학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등재후보 학술지 선정은 5211종의 국내 학술지를 기준으로 40% 안에 든 것”이라며 “신학 논문이 권위를 가진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교회 연합 속도 낸다

“지금이 통합 골든타임”...주요 7개 교단장 2차 회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의 통합을 촉구하고 독려하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통합의 분수령이 될 주요 교단 정기총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교계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회 주요 7개 교단장은 지난 19일 서울역 인근의 한 식당에 모여 한기총-한교연 통합을 위한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1차 회의 때 출범시킨 양 기관 통합을 위한 주관단체 명칭을 ‘한기총과한교연통합협의회(한통합)’에서 ‘한국교회연합을위한협의회(한연협)’로 바꿨다. 이번 통합이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에 그치지 않고 한국교회 다양한 주체들의 연합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주요 교단의 중진급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통합 추진 실무위원회 7개 교단 사무총장 내지 총무를 포함시키는 등 집행력도 보강했다. 한연협 관계자는 “각 교단의 핵심 인사인 사무총장이 참여함으로써 양 기관 통합과 관련해 교단 내부에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연협은 이들 실무위원회와 함께 통합 세부방안과 일정 등을 마련해 오는 24일 3

차 회의에 보고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무용(예장합동) 채영남(예장통합) 여성삼(기독교대한성결교회) 유영식(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장 전용재(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이성희(예장통합) 이태근(기하성 여의도순복음) 부총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수읍 박중선 박만수 오치용 최총회 목사 등 현직 실무위원들도 함께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대표회장 김경원 목사)도 이날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을 위한 모임을 열었다. 한국교회의 일치와 갱신을 위한 목회자 모임인 한목협의 지도자들은 “두 연합기관은 반드시 합쳐져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김경원 대표회장은 “한교연과 한기총이 하나로 합하는 건 한국교회의 절대적 요청”이라며 “지금 이 골든타임이다. 이 기회를 놓치면 통합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의 걸림돌로 꼽히는 다락방전도총회(류광수)의 이단 문제에 대해서도 교단들을 중심으로 뜻을 모아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한국교회 연합기관은 주요 교단을 중심으로 꾸려져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날 모임에는 한목협 명예회장인 손인용(대구교회 원로), 전병금(강남교회 원로) 목사와 상임 총무 이성구(부산 시온성교회) 목사, 사무총장 이상화(드림의교회) 목사 등이 참석했다.

예장합동, 한기총 복귀 부정적

‘류광수 다락방 이단성 재심청원에 관한 공청회’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한기총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남 목사)가 18일 개최한 ‘류광수 다락방 이단성 재심청원에 관한 공청회’는 공청회 이름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시작부터 빠거리거렸다. 패널로 나선 문병호(총신대) 교수는 “재심청원은 공청회로 진행할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이 아니다”라며 “신학적 토론이나 질의응답 대신 서면으로 정리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예장합동은 1996년 제81회 총회에서 ‘다락방전도운동(다락방)은 이단성이 있다’고 결의했으며 이후 제99회 총회에서도 관련 결의를 재확인하며 묘지부당한 입장을 고수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교회 주요교단들이 이단으로 결의한 후에도 다락방은 이방전승 사상, 신인합일 사상 등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을 설교 강의 집회 등을 통해 계속 가르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다락방의 이단성은 재론할 여지도, 명분도 없다”고 비판했다.

패널로 참석한 오창록(광신대) 김지호(칼빈대) 교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가 다락방을 이단해제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 교수는 “한기총이 추진위에 보내 온 ‘다락방의 이단해제 과정에 대한 자료’를 확인했는데 주요교단들의 이단 결정에 대해 어떤 논의도 없이 자체적

으로 이단해제가 진행된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오 교수도 “한기총이 다락방의 이단성을 판단할 당시 근거로 한 자료는 다락방이 회원으로 가입된 예장개혁 총회에서 제출한 것이었다”며 “한기총의 결정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청회는 준비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됐다. 추진위가 총회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위원장 박호근 목사)와 신학부(부장 김문갑 목사)에 패널 추천을 협조했지만 이대위와 신학부는 협조 및 공청회 참석을 거부했다. 추진위의 공청회 개최가 총회결의에 위배되고 총회 이단 재심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박호근 목사는 “총회에서 가결되지도 않은 이단재심은 불법이며 ‘총회 이단·사이비 규정 지침서’에 명시된 재심요건을 갖추지도 않았다”라면서 “그로서 ‘공청회가 다락방에 대한 이단 해제를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 서기 김상윤 목사는 “이번 공청회는 제100회 총회의 수임을 받아 한기총이 어떤 신학적 근거와 절차를 통해 다락방을 이단해제 했는지 토론하고 그 결과를 9월 열리는 제101회 총회 때 보고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추진위는 이단 결의를 해제할 권한도 이유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기총·한교연 통합 기도로 성원”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사무총장들 현안 논의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사무총장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교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의 통합 노력에 대해서는 기도로 성원하기로 했다.

사무총장들은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20대 정기국회에 맞춰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이고 동성애 확산 및 할랄 등 이슬람 유입에 대한 반대, 신천지 등 이단 사이버에 대한 대처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종교인 과세와 자

체별 인권조례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정보를 교류하기로 했다. 같은 달 6일 개최되는 전국 기독교연합회 대표자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토론하고 지역별 활동영역을 분담하기로 했다.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사무총장들이 모여 토론하고 기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전국광역시도 성장과 발전’ 한국교회 사회적 문제” 등을 제목으로 기도했다.

‘다양한 가족형태’ 교육법안 “문구 삭제”

박경미 의원측 기독교계 의견수용... 발의 15일만 수정기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법률안’에 명시된 ‘다양한 가족형태’에 동성커플이 포함될 수 있다는 기독교계의 지적에 따라 18일 수정기사를 밝혔다. 지난 3일 법안을 발의한지 15일만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내 ‘다양한 가족형태’는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때문에 발생한 한부모 가정, 혹은 미혼모·조손 가정을 의미하며 동성커플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기독교계 분들의 우려를 수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법안에서 ‘

다양한 가족형태’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진선미 의원 등 15명과 공동 발의한 법안 2조 4항에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한부모 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기독교계에선 이 중 ‘다양한 가족형태’에 동성커플과 자녀를 입양한 동성애자가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의 입장을 표기했다. 다수의 시민들은 항의전화와 의원실 항의방문 등으로 반대여론을 분방히 했다.

이 관계자는 ‘19대 국회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의 전단계인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한 진 의원과 법안 발의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진 의원과 논의하지 않았다. 진 의원이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는지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앞서 한국교회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학교에서 다양한 가족형태를 교육시키려는 법안은 철외배야 한다’는 논평에서 문제의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교회인론회는 “대한민국 헌법은 결혼을 1남1녀의 결합으로 국한시키고 있어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그런데 박 의원이 ‘다양한 가족형태’라는 문구를 삽입해 학생들에게 결혼이 아닌 동거를 선호하고 동성애를 해도 된다는 잘못된

된 생각을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가족형태’라는 개념은 서구에서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타파하기 위해 급진 페미니스트와 동성애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이라며 “2006년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의 교육전략에도 나오는 이 개념을 법제화하려는 시도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병대 교회인론회 사무총장은 “법안 15일 만에 해당 조항을 삭제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다양한 가족형태’라는 용어가 법률안에 들어가면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전조단계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교도소 선교칼럼 (3)



교도소 교목, TPPM대표
이영희 목사

영적 전쟁과 기도의 필요성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에서 사역한지 어느덧 13년이 되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에게는 육신적인 문제보다는 영적 전쟁으로 인해 많은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느끼게 됩니다. 그런 중에도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재소자들을 보면 큰 보람과 기쁨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 저에게 기도의 필요성을 더 알게 해주셨습니다.

은 방에 넣은 것 같아"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J는 요나단에게 "내가 믿는 것은 악령이 아니고 천사야"라고 말했으며, 요나단은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셨으니 결국 너는 나의 하나님의 창조물을 믿고 있는 거지"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신이 조폭으로 살았던 세월이 자신을 얼마나 파괴시키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또 그곳에서 삶의 의미나 건전한 목표를 찾지 못했다고 J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동안 그가 그토록 찾았던 삶의 의미를 찾고 기쁨을 느꼈으며 하나님께서 이제는 긍정적이고 기쁨과 풍성한 삶으로 자신을 인도하고 계시다고 말했습니다.

요나단의 간증을 듣자 J는 자신도 한때는 하나님을 믿었었다며 자신의 몸에 새긴 시편23장 4절의 문신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노라 고백하는 J를 보며 요나단은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요나단은 J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어했지만 J에게 역사하고 있는 마귀가 강한 마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그 방에 들어간 이후, 마귀의 공격이 심해 마음으로 기도하며 마귀를 쫓았지만 그는 계속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J가 자기의 신이라고 보여준 사진을 볼 때 요나단은 분노를 느끼게 되었고 자신이 J를 공격하는 환상을 계속 보는데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자신은 J를 절대로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환상은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분노를 참았다고 합니다.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분노를 어떻게 절제하는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사탄송배자까지도 포함하는 것을 새삼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공격으로 밤에 잠도 잘 수 없어 그 방에 머무는 3일만 지냈다고 J가 말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를 만났을 때 요나단은 그 방

에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만일 그대로 있다가 J가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자기 몸에서 피를 내서 사탄송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므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와 싸움에 날 수 있으니 방을 옮겨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교도관을 불러서 요나단이 교도관에게 상황 이야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교도관은 그런 이유로는 방을 바꿀 수 없으나 일단 상관에게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요나단과 상담을 마치고 그를 위해서 상관들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벌써 요나단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상관인 기독교인이었으므로 저는 요나단을 다른 방으로 옮기는 것이 안전할 것 같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마귀가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지는 모르겠지만 제자신도 그런 경험을 해보았기에 또 목사로서 요나단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요나단이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알려준 것입니다. 다른 상관은 요나단이 방을 그냥 옮기고 싶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는 목사로서의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제가 그 다음날 요나단을 다시 방문했을 때 감사하게도 그는 다른 방을 배정받아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영적인 공격이 그쳤으며 그리스도인과 한 방에 복역하게 되어 함께 성경을 읽는다며 기뻐했습니다. 요나단은 J와 함께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가 분노를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은 멀리함으로 불필요한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후에 요나단이 방을 그냥 옮기기 위해서라고 했던 한 상관은 나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가 나의 말을 의심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그래서 나는 영적인 세계나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나는 그를 이해한다고 말했고 요나단이 방을 옮기게 결정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는 아직도 자신의 몸을 두려움으로 사탄을 예배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도소에서는 J가 피를 흘려 땅바닥에 피가 떨어지는 것이 위생적이라며 그것을 그의 건강도 위협한다고 판단하여 그를 교도소안에 있는 병실에 독방을 쓰게 하며 24시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는 저를 볼 때마다 자기의 종교의식을 도대체 왜 하지 못하게 하느냐고 불평을 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J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영적 공격을 당하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께서 J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기적을 마음에 품으며 계속해서 재소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yonhui.mcdonald@gmail.com

선교 편지

아이티 단기선교

8월 16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길

아이티에서의 사역이 힘든 것이 아니라 오가는 길이 힘들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준비하고 다시 집을 싸고 5시 반에 집에서 출발해서 6시 반에 공항에 도착해서 짐 부치고 커피 한 잔 받아서 8시 30분 보딩을 기다립니다.

비행기는 정시에 출발해서 정시에 도착, 짐 찾는데 40분이 걸렸습니다. 공항에 스티브와 젠나가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탁 선교사님께서 직접 나오셨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스티브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가 점점 좋아진다고 느껴졌습니다.

공항에서 출발해서 5분 거리의 소나피까지 교통체증으로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오후 1시 35분 도착. 제가 너무 좋아하는 생선 매운탕 수제비를 준비해주셔서 점심을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오늘은 저희 딸 위슬린이 있는 House of Hope만 갑니다. 쌀과 식품들을 싣고 아이를 만날 생각에 들떠서 출발했습니다. 공항 앞을 통과해야 하는데 꼬박 1시간 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이티에서 제일 미인인 위슬린은 여전히 수줍은 듯 웃으며 반겨주었습니다. 함께 쌀도 나르고 새학기 선물을 주었습니다. 백팩, 필기구 세트, 그리고 갖고 싶어 하던 아이팟에 얼굴이 활짝 피었습니다. 선물 받는 아이보다 주는 제가 더 신이 나서 싱글빙글했습니다.

아이의 키가 크고 재벌 소녀티가 나는데 여전히 아픈 마음을 가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활짝 웃는데도 슬픔이 묻어나고 어두운 그림자가 언뜻언뜻 바람처럼 스칩니다.

식량을 보내고, 아이를 만나고 돌아와서 새로 얻은 아파트, <더 코너 아이티 센터>에서 청소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내일은 에어컨도 달아야 하고 전기도 기사를 불러서 다시 설치를 돌아와야 합니다.

저녁은 탁 선교사님과 목사 선교사님 덕에 스티브, 젠나와 함께 거하게 월남쌈으로 잔치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대충 흥내라도 내는 아이티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만 있지는 않습니다.

캄캄한 밤에 돌아왔는데 아직 전기는 들어오지 않고 와이파이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메일 보내드리려고 준비합니다.

오늘 밤, 인터넷로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 아래서 폭염을 견디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티를 기억하시죠?" 아이티는 별 변화가 없는데 사람들은 잊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더 기도가 간절합니다. "하나님, 잊지 않고 계신 줄 압니다....."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8월 17일, 그래도 감사합니다

어젯밤 늦게 전기가 들어와서 컴퓨터로

만든 220볼트를 연결한 방에 에어컨이 들어왔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일상인 것이 이렇게 특별한 감사가 됩니다.

이런 아침 시티 솔레 베다니 마을에 갔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이 달에도 이철용 형제가 집을 지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스티븐이 된 처녀가 길에서 집꾼으로 정발 입에 풀칠이나 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삽니다.

넓고 넓아 보여주기도 어려운 집을 허물고 그 옆에 반듯한 시멘트 집을 짓고 철문을 달았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얼마나 감사하는지요. 너무 좋아하면서 사진을 찍자니가 옷을 갈아입고 포즈를 취했습니다. 좀 교만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도 고마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탁 목사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공동화장실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원초적인 배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온 동네가 더러워지고 오염되고 질병이 떠나지 않습니다.

화장실 공사는 정말 난공사입니다. 진흙창 같은 땅을 깊이 파고, 돌출을 아주 많이 덮어야 합니다. 탁 선교사님이 자체 전기를 공급하고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동네 사람들이 자원해서 일을 합니다. 나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시티솔레 주민을 위해서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시티 솔레에서 돌아와 쌀을 싣고 고아원으로 출발합니다. 오늘은 장애아 고아원과 Care for Children, Love고아원 이렇게 세 곳만 방문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고아원은 쌀을 와서 가져갈 것입니다. 풍성하게 사놓은 쌀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한지 모릅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고아원으로 떠났습니다.

장애아 고아원은 10월에 다른 집을 구해야 합니다. 렌트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제작년에 8천불이 채 안 되는 돈으로 2년을 계약했는데 집 주인이 재계약을 안 해주어서 다른 곳을 알아보는데 웬만한 집들이 다 2년 계약에 만불을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여전히 밝고 반가운 모습으로 저희를 반겨주었습니다. 아이들 상태를 돌아보고 쌀과 식품을 내려놓고 과자도 먹여주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도 웃고 즐거운 표정을 지어 보여주고 손이라도 만져보려고 손을 내밀어 허공을 찌는 아이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힐링되고,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탁 선교사님께서 썬더함미장로교회에서 보내주시신 의약품도 전달하시고, 차 사모가 약품 상자를 청소하고 필요한 약 몇 가지를 채웠는데 설사약이 다 떨어졌다고 해서 채워주기로 하고 떠났습니다. 썬더함미장로교회에서 의약품을 보내주어서 각 고아원에 탁 선교사님께서 전달을 하셨습니다. 장애아들을 위해 더 넓고 새로운 장막을 허락하시길 함께 기도하자고 하고 떠났습니다.

일라브아에 있는 Care for Children의 매니저 파비앙은 얼굴이 빨갛고 반짝이 되어 있습니다. 서른 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해서 큰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을 가르치며 지내고 있습니다.

쌀과 식량을 내려놓고, 아이들에게 연필과 연필깎기와 칫솔 치약을 하나씩 나눠주었습니다. 지난달에 공급한 것입니다. 이미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14편으로 계속>

PRINTING & PROMOTION

프린팅 & 프로모션

BOOKS KOREANA, INC
월·토·일 오전 9:30~오후 8:00

각종 인쇄물과 다양한 판촉물 교회 행사에 필수!!

판촉볼펜

주보/헌금봉투

교회책자

단체 T셔츠

책 만들어 드립니다.

타올

머그컵

각종 상패

교회/매장/기타단체

전화: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상담 환영!

교회에서 행사할 때 수련회 단체 T셔츠 한글학교 단체복 원하는 디자인으로 해드립니다.

이메일 상담과 주문
bookskorea@gmail.com

인/터/뷰 이광보 선교사(아르헨티나 과라니 부족)

“사역 계승할 현지인 사역자 찾는다”

영화 미션의 무대였던 아르헨티나 과라니 부족을 대상으로 17년째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이광보 선교사.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시애틀 선한목자선교회에서 주최한 선한목자 컨퍼런스 참석자 미 서부를 방문했다.

지난 1999년 10월 24일 선교현지로 들어간 이광보 선교사는 이듬해 2000년 5월 첫째 주 미주한인예수교장모회(KAPC) 총회에서 파송됐다.

16년간 과라니 부족 선교를 감당해오며 과라니 부족의 일원이던 이 선교사는 16년전 처음 이과수 폭포를 찾았을 때 그들의 모습은 완전 자연의 모습 그대로였다고 회상했다.

“처음 그곳엘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체로 활동하는 것이예요. 선교하러 들어갔지만 도대체 민망해서 볼 수가 없었죠.”

대한민국 남한 땅만한 넓이에 70개 부족이 만 명 남짓 거주하고 있는 과라니 부족은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이과수 폭포지역에 보호지역으로 지정해놓고 거주하게 하고 있다. 마치 미국의 인디언 보호구역처럼 말이다.

지금도 전기도 없이, 물도 도랑물을 마시며 살고 있는 과라니 부족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광보 선교사는 그들의 삶이 변할 때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현재 23개 지교회(70개 마을)에 1800여명이 복음을 듣고 삶이 변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삶이 변하는 것은 예전에는 아무 의미도 없이 살던 사람들이 왜 이 땅에 사는지에 대한 이유를 인식하며 살게 된 것이라고 할까요. 그저 열매를 따먹으며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맨몸 부족들에게 옷 입히기부터 시작, 위생시설, 교육열 높아져
16년 사역동안 70개 마을에 23개 지교회 세우고 1800명 전도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게 됐으니까요.”

지난 17년 동안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등에 교회를 건축해왔으며 현재 70개 마을에 23개의 교회를 지은 그는 “그들을 위해 과라니 부족어로 번역된 성경이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라니 부족민들 중에서 3명을 선발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두란노신학교(학장 한영구 목사)에서 공부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한 부에노스아이레스 두란노신학교까지 가는 것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는 이 목사가 사역하는 푸른샘 교회에 분교를 열고 23명을 교육하고

있다.

이 선교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왜 살아야 하는 의미를 알게 된 과라니 부족민들의 삶의 변화는 계으로 승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끼리 모여 있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되었던 것이 복음이 심어지니까 변화가 됐습니다. 세탁은 물론이고 개인청결도 하지 않았던 그들이 깨끗한 생활을 하게 됐고, 무료 정으로 다니던 모습에서 옷을 사서 피어나오는 것이었어요. 무엇보다 자녀들의 교육열이 올라 과거에는 옷과 신발 그리고 먹을 것을 구하던 것이 지금은 학용품을 구해달라고 할 정도

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한 후 행복하다고 합니다.”

인디오들이 그렇게 게으른 삶을 살게 된 것은 그들에게서 미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옷도 입는 등 마는 등 해서 여성들도 상의를 탈의하고 다녔죠. 그래서 옷을 입혔더니 자기네들끼리 있는데 왜 그러냐고 하더군요.”

그들이 변하게 된 것은 그들을 데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대도시를 다녀오게 되면서 부터였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되니 더 이상 옷을 안 입고 다니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그동안 하지 않았던 투표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과라니 부족에게 있어 백인들의 존재는 악의 존재와 같다. 영화 미션에서 나온 것처럼 총으로 짓밟힘을 당했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그들에게 스페인 등 열강들의 존재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악의 역사와 같다. 하지만 인종으로는 대한민국사람들과 같은 인종이라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한다.

〈13면에서 계속〉
나일 스티브가 공책을 사오면 이곳에 보내줄 것입니다. 6학년 다녔다는 여자 아이 두 명이 저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학교에 다시 갈 수 있는 날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비양은 고아원 안에 학교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아직 펀드가 해결되지 않았습다. 시설도 깨끗하고, 조금만 손보면 학교를 운영할 장소는 됩니다. 선생님 월급과 교육용품, 학용품, 교과서 등의 공급이 되어야 하고 지속적인 후원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계속 기도하자고 하고, 큰 아이들을 격려하고 돌아서는데 마음이 잔하고 미안했습니다.

일라브아 36가 러브 고아원은 들어가는 진입로가 하수구 공사를 한다고 파놓아서 차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도로 공사한다고 일 년을 땅 파놓고 있거든요. 루베스가 고아원에 들어가서 어른들을 불러왔습니다. 길에서 식량을 전달하고 약품도 전했습니다.

연필, 크래프트 재료, 연필깎기와 학용품을 전하면서 노트도 곧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떠난 후에 따로 보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애 어른이 모두 쌀, 콩, 옥수수, 설량 포대를 머리에 이고 씩씩하고 신나는 걸음으로 고아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라도 감사합니다. 길에서라도 감사하고 무거워도 감사합니다. 공급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공급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곳곳에 길이 막혀 가난한 쪽으로 빙 돌아 돌아오려는데 탁 선교사님께서 써본 교회에 들려보라고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 써본 교회에 들렀습니다. 지난여름 다섯 고아원이 모여 축제를 한 곳입니다. 밥도 먹고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축구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운영하는 학교에서 2백 명이 넘는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스무 명중의 고아들도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법 자리를 잡은 학교여서 솔직히 좀 부러웠습니다. 뉴욕의 작은 교회들이 연합하여 교회도 짓고 기도하며 많이 도운 곳입니다. 아이티 어느 곳인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돕는 고아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곳에서 자립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할 일이 참 많은 나라인데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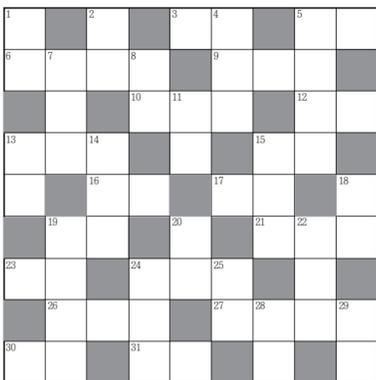
오늘은 전기가 제법 일찍 들어왔다가 밤 열시쯤 나갔습니다. 게다가 인버터도 고장이 나서 밤새도록 썬램프를 견디며 아이티를 맞보고 있습니다. 장애아 고아원 이사문제와 Care for Children의 교육문제를 생각하면 무거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래도 감사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이라도 허락하시고 이렇게라도 먹고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 부족한 저희를 도구로 써주시는 것이 오늘 새삼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이티에서 조항석 목사 / 헬핑핸즈 미션네트워크
chohenry02@gmail.com

십자말 • Cross Word (137)

김기호 장로(본지 교문)



<가로 푸는 열쇠>

- 말, 소, 양 등을 놓아기르는 넓은 들이나 산 같은 초지(삼하7:8).
- 재물을 체면 없이 아니꼽게 아낌(고후9:7).
- 양심을 버린 사람이고로 바울이 징계하기 위하여 사단에게 주었다고 하였다(딤후1:20).
- 소나 돼지 같은 것을 잡아 죽이는 곳(사34:7).
- 목에 거는 장식물(출35:22).
- 산비둘기(야2:12).
- 열 또는 찬 기운 때문에 대기 밀도의 급변으로 빛이 이상하게 켜이 어 공중이나 땅위에 무엇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과학).
- 알지 못함(창34:25).
- 이상야릇함(렘5:30).
- 살아나감(행26:4).
- 코끼리의 어금니(왕상10:18).
- 입금을 호위하는 군대(삼하23:23).
- 더운 물이 솟구쳐 나오는 샘(창36:24).
- 유대인의 종교, 율법과 유전에 기초한 것으로 한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행2:10).
- 므낫세의 장인(왕하21:19).
- 매우 뒤우치며 스스로 고백하고 항복함(사34:18, 레5:5).
- 무리한 생각이나 행동을 고집하는 일(문1:14).
- 몰래 피해 달아남(렘7:16).

<세로 푸는 열쇠>

- 유대의 선지자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유대 왕 여호사밧을 책망한 자(왕상16:1-7).
- 도시의 안쪽(마8:33).
- 못을 막고 빼는 연장(레10:4).
- 인장으로 사용하는 반지(창41:42).
- 여름, 가을에 눈 풀밭에 많이 사는 길이 3cm 정도의 초록색 곤충(출10:4).
- 산나루과의 상록교목(겔27:15).
- 잘난 체 하며 남을 업신여김(시73:8).
- 대단한 괴로움(산26:7).
- 소아시아 서남해안에 있는 작은 도(행27:5).
-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눅14:14).
- 대나 나무로 된 긴 막대기(민21:8).
- 온 천지.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수2:11).
- 옛 시대(말3:4).
- 수고한 것을 아무런대주고 괴로움을 잊게 하며 칭찬해주는 사람(전4:1).
- 가룟 유다 대신에 12 사도로 전거된 요셉의 별명(행1:23).
- 서로 막힘이 없이 오가는 일(잠3:32).
- 예배하는 장소(시74:8).
- 기쁜 소식, 굿 뉴스(갈1:7).

십자말 정답



2016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해외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본 협회는 아래와 같이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 대상 :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및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 추천도서 6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Letter 또는 A4 size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며, 제출마감일은 2016년 10월 1일 미서부시간 오후 5시.
- 제출처 :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시해 주십시오.
- 시상 :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일 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1,000, \$5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릴 예정.

주최 :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장영춘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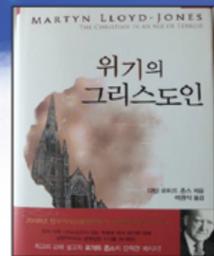


-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 미주기독교방송(로스엔젤레스, 미국)
- 미주복음방송(로스엔젤레스, 미국)
-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 아멘넷(뉴욕, 미국)
- 유럽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 크리스찬 미디어(시애틀, 미국)
- 크리스찬 월드(토론토, 캐나다)
- 크리스찬 리뷰(시드니, 호주)

추천도서



폴 워셔 저, 생명의말씀사



마틴 로이드존스 저, 지평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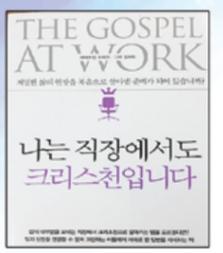
켄 가이어 저, 디모데



박영선 · 김관성 저, 두란노



강준민 저, 두란노



세바스찬 토퍼 · 그렉 길버트, 생명의말씀사

후원 기독교서점협회 *도서구입처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6) 정기적인 건강 체크를 사모와 함께 꼭 받도록 한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계속 기침을 하는 것을 보고 사모에게 목사님을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 보시라고 했다. 그 사모는 '목사님이 엘리저 증세로 기침하는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교인이 강정하여 의사를 찾아가 진찰을 받아 보았다. 폐렴이었다. 결국 항생제를 투약하면서 고생을 많이 한 후에 회복하였다. 바쁘다고 건강 체크를 소홀히 하다가는 병을 키워서 더 고생하게 된다. 사모는 정기적으로 목사님이 건강을 체크하도록 잘 챙겨 드려야 한다.

제 8장 목회자의 자녀교육

사모의 혈압을 올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모든 목사의 자식들은 다 나쁘고 모든 목사관의 아이들은 선머슴'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솔한 말은 목회자나 그

해야 한다.

1. 목회자 자녀들의 문제점 이해

목사의 자녀들을 PK(Preacher's Kid or Pastor's Kid)라 부르고 선교사의 자녀는 MK(Missionary's kid)라고 부른다. 그런데 교회에서 교인들은 목사의 자녀들을 마치 완전한 자녀(Perfect Kid)처럼 생각하며 기대할 뿐 아니라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옷차림이나 머리 스타일 등을 주시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여러 가지 압박 속에서 억압과 갈등을 가질 때가 많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위로해야 한다. 그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며 칭찬과 격려를 해줌으로 반발하거나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게 해야 한다. 또한 자녀들의 인격 형성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한 기도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자녀들을 PK 즉, Precious Kids라 부른다.

는데 타 지역 이웃 대학교에서까지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다고 설명하는 것이었다.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사모들이 받는 스트레스 못지않게 목회자의 자녀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동양선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였다. 여름방학 기간에 교회에서 대학생들을 채용해서 머스쿨을 운영했다. 한번은 대학에 다니는 아들이 여름방학이 되어 집에 와 있었는데 식사를 하는 중에 "아버지, 저 여름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어요"라는 것이었다. "그래, 어디에서 일하게 됐니?"하고 물었더니 바로 남편 섬기는 동양선교회의 여름학교 선생을 뽑는데 응시해서 채용됐다는 것이다.

우리는 깜짝 놀라면서 "우리한테 말했으면 담당 장로님한테 부탁을 했지"라고 말했더니 "That is why I did not tell you because I did not want them to hire me

최고의 에제르가 된다 (9)



이희숙 사모

들의 자녀를 향한 잔인한 말이며 실제적으로 정당한 근거도 없이 책임 없이 하는 말이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목사의 자녀들의 행동을 측정할 때 다른 성도의 자녀들과 동일한 기준이 아닌 한 차원 높은 기준에서 판단하며 목사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행동을 할지라도 더 나쁘게 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사의 자녀가 훌륭하게 성장하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혹시 목사의 자녀들이 잘못되면 비판과 정죄를 할뿐 아니라 소문도 나쁘게 낸다. 성도들의 눈에는 확대되어 보이므로 결과적으로 훌륭하게 성장하는 목회자의 자녀들보다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들이 더 많은 것처럼 보니 모든 목사의 자녀들은 다 나쁜 것처럼 생각한다.

부부가 아무리 행복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도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문제를 일으키면 가정의 행복이 깨어지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 부부는 자녀들을 주의 사랑과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야 한다.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들과 목회자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의 위치 때문에 자녀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목사가 교회의 일에 바쁘게 뛰다보면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며 교육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 사모가 자녀교육의 중책을 맡아야 할 때가 많다.

사도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에 감독의 직책을 설명하면서 지도자로서 자녀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딤후3:4-5). 사모가 자녀들을 잘 교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회자 자녀들의 문제점들을 이해하고 감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사의 자녀가 훌륭하게 성장하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혹시 목사의 자녀들이 잘못되면 비판과 정죄를 할뿐 아니라 소문도 나쁘게 낸다. 성도들의 눈에는 확대되어 보이므로 결과적으로 훌륭하게 성장하는 목회자의 자녀들보다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들이 더 많은 것처럼 보니 모든 목사의 자녀들은 다 나쁜 것처럼 생각한다.

어느 미국인 목사 사모님에게 한번은 장로의 부인 중에 한 사람이 "사모님! 목사님의 아들이 말썽을 많이 피워요"하며 불평을 하더라. 그래서 사모님이 "그래요? 우리 아이가 예전에는 전혀 안 그랬는데 장로님 아들과 함께 놀더니 그렇게 됐네요"하고 일침을 놓았다고 한다.

1) 자기의 정체성에 관한 존재 의식이 문제

목사의 자녀들은 자기 자신이라는 단일한 존재가 아니라 항상 아무개 목사님의 딸 또는 아무개 목사님의 아들로 소개되며 판단을 받는다. 필자의 큰 딸인 조이스가 보스턴 대학에 입학하여 우리 부부가 딸아이를 대학 기숙사에 데려다 주기 위해 함께 보스턴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딸을 데리고 보스턴으로 온다는 것을 안 친구 목사의 부탁으로 보스턴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주일설교를 하게 되었다. 우리는 딸과 함께 주일예배에 참석하였고 딸아이는 자기를 소개할 때 절대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강사 이병희 목사님의 딸이라고 소개하지 말라고 해서 그 교회의 담임목사님께 특별히 부탁을 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목사님께서 광고시간에 조이스를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하신 강사 목사님의 딸"이라고 하셨다.

결국 딸아이는 그 후에 그 교회를 나가지 않고 다른 교회에 등록을 했다. 휴스턴에 살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없어 항상 '이병희 목사의 딸'로서 스트레스 받고 살았

because I am the son of Senior Pastor, Byung Hee Lee!"(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디다. 저는 그들이 제가 담회장 이병희 목사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를 선생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디다)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 스스로의 자격으로 뽑히기를 원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아들은 여름철인데도 넥타이를 매고 정장을 깔끔하고 입고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다.

2) 교인들의 지나친 관심과 감시를 받고 있다는 데서 오는 중압감의 문제

(1) "목사의 자녀가 그러서는 안된다"는 강요

교역자의 자녀들은 충분한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면서 매사에 모범이 되어야 하며 모든 교인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부모의 강박관념과 벼찬 기대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부모의 기대도 벼찬데 교인들까지 목사의 자녀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데 더 문제가 많다. 많은 성도들이 목사의 자녀들은 완벽한 자들이라고 믿고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보았으므로 학교도 일류 대학에 합격해야 한다. 공부도 잘해야 하며 졸업 후에는 직장도 좋은데 들어가서 성공해야 하며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혹시 병이라도 나가나 대학이라도 떨어지면 무슨 죄가 많아서 그렇기 하며 수군수군한다는 것이다.

hslee39@sbcglobal.net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헤브론 각 성에 거하게 하나라(삼하2:2-3)

다윗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두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유다 성읍에 올라가라는 것이고 그 다음 구체적으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응답을 받아마자 온 식구들을 이끌고 즉시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자기 생각과는 다르지만 그 즉시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사실 자기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왕이 죽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점령을 당해 혼란스러운 이때에 예루살렘으로 즉시 올라가 블레셋의 횡포를 물리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내생각과 맞지 않지만 즉시 순종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모습입니다.

화 여호와께 복을 받으라(삼하2:4-5)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6개월 동안 있었는데 우리 생각 같으면 빨리 올라가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수업을 철저히 가르치셨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또 한가지는 은혜 깊은 사람을 후하게 대접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이 길르앗 아베스 사람들이 사울왕을 정

성스럽게 장사를 지내주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위협을 무릅쓰고 적지에 들어가서 사울왕의 시체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길르앗 아베스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전에 사울왕에게 큰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아베스 사람들을 마음 깊이 축복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수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베푸시기를 원하고(삼하2:6)

아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왕이 되기도 전에 받았던 은총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고마워하고 갚을 줄 아는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사울왕에게 은혜를 갚은 사람들을 후하게 대접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을 줄 아는 사람들을 후하게 대접하시고 놀라운 복을 더해줍니다. 세상은 늘 나에게 필요할 때만 좋다고 하다가 내게

도움이 안될 것 같으면 외면합니다. 그 옛날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성도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베푸십니다(6절). 아베스 사람들의 은혜 깊은 모습과 아베스 사람들을 기억하고 후하게 대접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목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음이니라(삼하2:7-9)

본문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유다족 속만을 제외한 그 외의 모든 이스라엘의 왕을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중한 메시지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은 유다지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족보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열두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서는 유다를 통해서만 그 혈통을 이어옵니다(창49:8-10). 열한 지파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들이 인정하여 왕을 세우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지파만이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지파 중에서 다윗이 왕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금 두 해 동안 위에 있으리라(삼하2:10-11)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외에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이스마엘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삭에게는 야곱 외에 에서가 있었지만 에서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야곱에게는 열두지파의 아들이 있었지만 다른 지파는 다 흩어지고 오직 유다지파만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은 오직 한 길이라

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그 어떠한 길은 다 인정받지 못하는 길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보여도 결국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다 버림을 받습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히 영적으로 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로 가고 원하시는 데로 가야합니다.

토 다윗의 심복들 앞에서 패하리라(삼하2:12-17)

본문은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심복들이 싸움을 걸면서 시작됩니다. 싸움은 항상 나쁜 사람들이 먼저 걸어들어옵니다. 양쪽 진영이 맹렬하게 싸움이 붙었는데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심복들 앞에서 패했습니다.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수많은 싸움과 전쟁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싸움과

전쟁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군대의 수가 많고 적고 힘이 있고 없는 것에 관계가 없습니다.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사람이 승리합니다. 아멘!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p>금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www.kumnan.org Tel: (82)2-46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가락동 340-1(131-231)</p>	<p>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p>	<p>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8670(교우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p>	<p>새이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p>	<p>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Tel: (82)2-2646-3191~3, (82)2-2646-3184 서울시 강동구 독성동 520 (150-808)</p>	<p>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www.seongsil.or.kr Tel: (82)2-998-9988, Fax: 3927-1008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22-43 (142-073)</p>	<p>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강동구 죽3동 713-26호</p>
<p>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p>	<p>승송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Tel: (02)732-2341~3, 사택: (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로동 137 번지</p>	<p>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신갈동 419-2</p>	<p>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용 Tel: (82)2-842-1968, 사택: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63-3, (150-051)</p>	<p>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결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중랑구 가락동 172 29(갈매동) www.shincheon.org</p>	<p>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Tel: (82)2-786-6579, 사택: (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p>	<p>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Tel: (011)82-2-927-5511 서울 용매동 제1동 146-7</p>
<p>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월영로 415 www.yangok.org</p>	<p>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p>	<p>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Tel: (02)842-6881, Fax: (02)8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p>	<p>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중증 Tel: (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403-838)</p>	<p>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p>	<p>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p>	<p>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p>



shalom의 교육학(3)

Shalom



이희갑 목사 (아주사퍼시픽 대학교 교수)

요시아왕과 다니엘 그리고 우리의 과제

한인 이민교회여! 자부심을 가져라

필자가 예전에 한인 이민교회의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가 있었다. 1903년 1월 7,226명이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일하러 미국에 오는 것이 한국인들의 이민역사의 시작이다. 그해 10월 호놀룰루에 한인 감리교회가 최초로 세워지게 되는데 약 110년이 지난 지금 미국과 캐나다(약 200개의 교회)에 약 4000여개의 한인이민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도 한나라의 이민자들에게 의해 약 4천개의 이민교회가 110년 만에 세워지는 세계 유래가 없는 역사적인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그 성공의 비결이 무엇일까? 필자가 보기에 두 가지 이유이다.

첫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헌신적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눈발, 전도를 팔고, 교회에 뼈를 묻었다. 이는 미국에 이민 온 후에도 계속되었다. 힘든 이민생활 속에서도 그들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다. 남들이 골프치고 호텔에서 편하게 지내는 휴가를 취소하고 침낭하나 가지고 잠을 설치며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교회 여름부흥회에 다니기를 더 선호하였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구현되었던 것이다. 교회가 곧 삶의 터전이었고 미래의 비전이었고 가정생활의 중심이었다.

둘째로 교회가 차세대의 리더로 세우고 교육을 시키는 학습의 중심이었다는 것이다. 오늘의 조국이 믿음의 지도자들로 가득 찬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미국에 있는 한인 이민교회의 역할임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조국이 일본의 침입으로 미래가 흔들릴 때, 독립군 자금을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보내준 것도 미국에 있는 한인 이민교회였다. 조국이 미래의 지도자가 없어 구심점이 흔들릴 때 차기 지도자가 성장하도록 배양하는 역할을 한 것도 바로 미국 이민교회였다.

1960년대 이후 조국 근대화화의 터전을 세우기 위해 수많은 한국 엘리트들이 미국에 와서 공부할 때, 이들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믿음으로 이들을 세워주고 이들이 조국에 돌아갈 때 기독교 선교사로 파송한 것도 미국 이민교회의 역할이었다. 바로 이것이 한인 이민교회를 하나님이크게 사용해주신 이유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런 성공비결을 과거의 향수로만 젖어있어서야 되겠는가? 이는 향후 이민교회 역사를 설계할 때 매우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결국 하

나님은 교회의 역할 중 차세대에 대한 비전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으며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의 변화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가치관 믿음으로 무장시킬 것을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교회의 과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 회에서 필자가 언급했던 것 같이 세상은 점점 사악해져가고 기독교교육은 점점 더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차세대 교육의 가치와 방향이 무엇일까?

기독교 가치에 입각해서 건립된 나라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작금의 현상을 어디에 비교할

“여호와 말씀이 선하니이다.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대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왕하20:18). 무슨 말인가? 그가 말한 여호와와 선하심이란 말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에 대한 걱정과 회개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 심판이 자기 때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나는 것이다. 그래서 안도의 심정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이다. 똑같은 사건에 대해 이사야 39:8에는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와 말씀이 좋소이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당대에 자신의 처지와

일이 일어났는가? 불과 100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유다왕 여호야긴 때 바벨론 느브갓네살은 예루살렘의 성전 모든 보물, 왕궁 모든 보물을 집어내고,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방백, 용사 1만명, 왕의 모친, 아내, 내시, 권세있는 자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갔다(왕하24:13-15).

조상이 잘못하면 그 불행한 열매가 우리 후손이 당하게 된다. 우리의 후손과 자녀들을 위해 아무런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려 하지 않은 히스기야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데 요시아왕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요시아왕은 유대 16대 왕이므로 히스기야는 그의 증조할아버지가 된다. 히스기야왕 사후 유다는 이미 쇠퇴기를 겪고 있었고 요시아왕 역시 왕조가 곧 몰락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열왕기하 22:16에 보면 여선지자 홀다가 유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을 예언하기도 하였다. 그런 풍전등화 같은 위급한 시절에 그는 최선을 다하여 전심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한다. 과연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이미 심판이 임박한 상황에서 그가 뭘을 한다고 달라질 것이 있겠는가?

그러나 그럴지라도 요시아왕은 그의 위

개혁정치는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성공이라 할 수는 없었다고 평할 수 있다. 혹자는 말하러가는 왕조의 수명을 잠시 붙잡아 놓는 땀집에 불과하다고 혹평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과연 그런가? 그의 개혁정치를 실패로 단정 지을 수 있을까?

그의 개혁 때문에 바벨론에서 찬란히 빛나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역사가 있었고 바벨론 포로생활이후 유대민족은 이때 배운 믿음과 헌신의 경험을 통하여 디아스포라 세계방방곡곡에 믿음을 심는 씨앗이 되었다. 우리는 요시아왕의 경험을 배워야 한다. 그는 모든 사람을 초대했다. 높은 사람부터 낮은 위치의 사람들까지, 어른들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누가 율법책을 읽었는가? 바로 요시아왕 자신이 율법책을 읽었다.

한사람의 리더가 이렇듯 세상을 바꾸는 법이다. 교회 리더들, 학부모님들은 이런 믿음을 분반해야 한다. 우리 작금의 상황이 어렵지만 요시아왕 때와 비교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처지가 어떠한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과 복음을 심어주는데 최선의 경주를 하여야 한다.

위대한 교육자 모세

이민 110년 만에 북미에 4천여 교회 설립한 한인교회에 자부심 자기신앙만 고수한 히스기야보다 율법교육 시킨 요시아 따라야

수 있을까? 필자가 보기에 지금의 여러 정황 속에서 유다가 서서히 멸망하고 있는 징후를 보고 있다면 과장된 표현일까?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히스기야왕과 요시아왕의 대처 방법을 만년교사로 삼기로 하자.

요시아왕에게서 배우는 교훈

유다왕 제 13대 임금이었던 히스기야는 19명의 유대왕 중에 성군으로 불리워졌던 사람이다. 그는 25세에 왕이 되어 29년간 통치하면서 이방신 숭배를 척결하고, 산당을 철폐하여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였고 모세의 율법을 깨뜨리려 우상숭배에서 벗어나게 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그가 병들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듣게 되고 그는 통곡으로 기도하게 된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사 15년을 더 살도록 허락하셨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그가 나온 후 교만하게 되고 이를 들은 바벨론 사신들에게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 이에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보내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하였는지를 알게 하고 다가오는 환난과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다. 열왕기하 20:17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질책한다.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바 되고 왕의 아들들이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해 히스기야는 어떻게 대답하는가?



성공에만 매달린 사람이었다. 후세들에게 고통이 오든 말든, 그 고통과 심판이 자기 당대에 오지 않은 것에 그는 감사하고 있다. 성경에 그가 후손들을 위하여 어떠한 준비를 했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는 영적 근시를 가진 사람이었고 자신의 신앙이 자신 및 당대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을 위하여는 구구절절이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후손과 미래를 위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다.

리더는 그러면 안된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을 때 그는 그러한 심판이 후대에 내리지 않도록 준비를 했어야 했다. 모든 부가 곧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왕의 후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지만 그는 무관심하였고 오히려 그러한 일이 자신 당대에 일어나지 않는데 대해 안도하였다. 그 결과 어떤

처에서 최선을 다하였다. 그는 모든 사람을 다 초대해서 율법책을 읽었고 듣게 했다. 역대하 34:30, 그는 모든 사람(유다 모든 사람, 예루살렘 주민들, 제사장, 레위사람들, 모든 백성, 노소를 막론하고)이 오게 했고 왕은 손수 율법책 말씀을 읽었다.

그가 초대한 사람들 중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있었다. 탈무드 기록에 의하면 다니엘은 요시아왕 재임기간 중에 태어나 요시아왕의 개혁정치 도중에 철저히 말씀의 훈련을 받았다고 나와 있다. 다니엘이 10대 소년으로 바벨론에 붙잡혀 갔을 때 어떠한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은 믿음의 비결을 언제 어떻게 배웠을까?

바로 이때였다. 요시아왕의 개혁정치를 통해 말씀과 경건의 훈련을 이때 철저히 배웠던 것이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그가 어디를 가든 그를 지탱해준 버팀목이 되었던 것이다. 결국 요시아왕의

이점에서 우리는 모세의 용기를 배워야 할 것이다. 출애굽기 10:9를 보면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바로에게 간청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나 바로는 어린 아이들은 남겨놓고 장정만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오라고 타협안을 제시한다.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럴듯한 타협안이었을 게다. 그러나 모세는 단호하게 거부한다. 왜 그랬을까? 모세는 차세대들이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려야 한다고 믿었다. 이스라엘 민족 모두(아이들을 포함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추구했고 차세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성세대의 과업임을 그는 믿었던 것이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다 함은 바로 이런 모세의 교육자적 식견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자녀/후손에게 무엇을 남겨놓고 있는가? 갈수록 신앙인으로서 살기 어려워진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 후손/자녀들을 향해 긍휼과 안타까움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히스기야와 같이 나만 신앙적으로 괜찮으면 되고 당대만 잘되면 좋다는 이기적 신앙에 혹시 빠져들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감당하기에는 이미 세상이 너무 썩었다고 스스로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해서 우리 후손/자녀들이 세상의 포로가 되고 영적으로 고단한 삶을 살게 될 줄 누가 아는가?

명심하자. 지금 시대의 요시아와 모세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은 나의 자녀,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을 그런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가르쳐야 하는 시기이고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제2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로 자라나는 것이다.

hlee0414@gmail.com (계속)

“알찬수업, 든든한 뿌리교육, 꿈을 키워주는 학교”

남가주꿈나무한국학교 학생 모집

남가주든든한교회(담임 김원인목사) 부설 남가주꿈나무한국학교에서는 2016년 가을학기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배우고 한국의 전통문화를 익힘으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갖고 국제사회의 주역이 되도록 지도합니다.

- 모집 대상: 만 5세 ~ 초등학교 6학년, 중학생
- 학 기: 봄 학기(2월 - 6월) 가을 학기(9월 - 12월) 현재 등록 접수 중
- 수업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 12시
- 등록 금: 30\$, 수업료: 30\$ (매월)
- 장 소: 남가주든든한교회(1645 Beverly Blvd. L.A., CA 90026)

- 수업 내 용: 한국어(소그룹으로 최대한 개인지도) 특별활동 한국어 -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한국역사와 문화 특별활동 - 동요, 전통놀이, 미술, 구연동화, 스페인어(특별강사)
- 문 의 처: (213)481-2779 (213)393-8814(김금주 전도사)

남가주든든한교회 부설 남가주꿈나무한국학교

